

[표지 간지 추가]



# 2017 GGU 學而時習之 수업에세이 공모전作品集

좋은 수업을 배우고 때때로 익혀  
학우들과 공유하면 그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 C/O/N/T/E/N/T/S

### 최우수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꿈을 품다.

전지현 국제통상통역학과

003

### 우수

이머징마켓, 도대체 이 강의는 머징?

김익찬 국제통상통역학과

011

‘함께’의 참된 의미

박재윤 국제통상학부

019

우리 경제의 모습과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濫故而知新

박하영 국제통상통역학과

027

나의 가치를 알려준 고마운 강의

이소현 사회복지학과

035

### 장려

금강대학교, DROP The BIT !!

김민섭 응용불교학과/IT소프트웨어

043

재무제표분석 : 숲을 보는 방법

송우현 회계학과

049

사회복지사의 업무 프로포절

오선빈 사회복지학과

057

민주주의의 정책학

임진아 행정학과

065

### 참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교양수업에 관하여

박준영 국제통상통역학과

071

이제 나는 진짜 행정학과 학생이 되었다.

최주영 행정학과

081

어서와, 이런 불교 수업은 처음이지?

이정렬 불교학과

087

영어를 배우다.

강은주 회계학과

095

글쓰기의 즐거움

김진희 중국어통번역학과

101



## 최우수상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꿈을 품다.**

전지현 / 국제통상통역학과

최위정 교수 '현대한국정치사'

“현대한국정치사 강의는 제가 동기와 함께 ‘학생 자기융합 설계 과목’으로 신청하여 개설된 강의였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제 꿈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었으며 한 학기를 뜻깊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꿈을 품다.

전지현 / 국제통상통역학과

고등학교 때 나의 꿈은 정치를 하는 것이었다. 역사 수업시간에 배웠던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사건들은 어린 나의 가슴을 끓게 했다. 나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도 민주주의라는 것을 수호하기 위해 청춘을 바쳤는지 궁금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했던 나는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았던 정치 과목을 독학하기 시작했다. 선생님들과 주위 친구들은 나를 만류했다. 그들은 수능에서 사회 과목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학교에 수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달랐다.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지적 욕구가 오히려 공부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었다. 나는 전국연합 모의고사에서 정치 과목 전국 1% 내에 드는 성적을 받았고 나의 열정을 증명해 보였다.

그때부터 나는 틈만 나면 정치에 대해 골몰하기 시작했다. 교내에 정치토론 동아리를 만들고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정치 포럼에도 참가했다. 그렇게 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기도 했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학생회 선배들이 다음 학생회장을 자신들과 친한 후배로 투표 없이 임명하는 악습이 있었다. 나는 선생님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친구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배우는 민주주의와 배치되는 것이며 선거를 거쳐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분노를 토로했다.

친구들은 오히려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는 나의 모습을 불편해했고 일을 크게 만들어 선배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것을 염려했다. 그때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선생님들이 계신 교무실을 드나들었다. 선생님들께 당시의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런 사실을 잘 모르던 선생님들도 다수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내가 제기했던 문제는 교내에서 공론화 되었으며 다음 학생회장부터는 선거를 통해 뽑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때의 사건으로 선배,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지기도 했지만 나의 작은 용기로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지금도 은사님들을 뵈 때마다 그때의 얘기를 하시며 칭찬을 듣는다. 다시금 정치에 대한 꿈을 굳혔던 계기였다.

대학에 입학할 무렵이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는 종종 나를 걱정하셨다. 어머니가 걱정하신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시위 참여였다.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 너무나 열정적이었던 내가 대학 진학 후에 시위에 참여해서 신변에 문제가 생길까봐 하시는 걱정이었다. 나는 그때 당시 대학에 입학하면 어머니가 걱정하시던 일이 자주 일어날 줄 알았다. '대학에 입학하기만 하면 온 세상에 나의 의지와 목소리를 전하리라.'하는 생각으로 부풀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 입학 후에 내가 보았던 대학은 마치 취업학과 같은 모습이었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철학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매일 밤을 새며 토론을 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친구들은 사회 문제보다는 토익 점수, 공무원 시험 합격률과 같은 것에 더욱 골몰했다. 정치인이라는 꿈은 점점 무색해졌고 나도 현실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에게도 다른 친구들과 별 다를 것 없이 어떻게 좋은 직장에 취업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고등학교 때 달고 살았던 정치 관련 서적들에도 손을 땀다. 그렇게 나의 꿈은 멀어져 가고 있었다.

2014년 1학기에 최위정 교수님의 '고전으로 읽는 정치학' 수업을 들었다. 그 강의를 신청했던 이유는 아주 단순했다. 교양 수업 학점을 채워야 했고 그나마 관심이 있었던 정치학 관련 강의를 선택하면 학점을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의 나는 그저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다. 학점도 그리 높지 않았고 단순한 자격증 하나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졸업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막연한 고민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큰 고민 없이 선택했던 강의가 다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왔다. '고전으로 읽는 정치학' 강의는 강의 제목 그대로 고전을 통해 이해하는 정치학이었기 때문에 내용이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 조는 학생이 단 한명도 없었고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중했다. 최위정 교수님의 강의는 너무나 열정적이었고 학생들의 어떠한 질문도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다시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정치 관련 책들을 탐독했다. 2016년 2학기말 무렵에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 자기융합 설계과목'에 대한 공지가 있었다. 학생들의 주도로 수업을 개설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한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 동기와 함께 최위정 교수님의 정치학 강의 개설을 신청했다. 교수님과 강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리의 큰 바람은 통했고 2017년 1학기에 최위정 교수님의 '현대한국정치사' 수업을 듣게 되었다.

'현대한국정치사' 강의는 우리나라 정치학계의 거장이라 할 수 있는 최장집 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저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지난 60여 년의 현대 한국 정치를 소재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구조, 변화를 다룬 책이다. 이 저서는 한국 정치사에 대한 학술적이고 대중적인 교과서이자 독본으로 알려져 있다. 나는 이 책을 새 학기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직접 구매해서 읽어보았다. 직접 강의를 설계한 학생으로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본 후 의구심이 생겼다. 대학 수업의 교과서로 채택된 교재가 너무 편향된 시각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대학이 지식인들의 공간이고 기득권에 대한 저항의 토대가 되는 곳이라고는 하나 너무 편향된 내용의 교재가 선정됐다는 생각에 심기가 불편했다. 이 수업을 설계할 때의 취지가 중립적인 시각에서 정치를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강의 첫 시간에 이러한 나의 의견을 교수님께 전달하겠다고 생각하고 수업에 들어갔다.

교수님께서도 마치 이런 나의 생각을 미리 읽어내신 것처럼 첫 시간에 그 책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저서라고는 하나 시민사회와 정치학계에서 널리 인정받는 책이며 이 책을 비판적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오히려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다. 나는 교수님의 설명에 납득할 수밖에 없었고 얄은 생각을 반성했다.

수업진행은 먼저 교수님이 매시간 교재의 일정 부분을 정해주시고 수업 전까지 그 내용을 예습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적 관점으로 따져보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1장의 참여와 대표의 위기 부분을 다음 수업 내용으로 정했다면 학생들은 참여와 대표의 개념에 대해 파악하고 참여와 대표의 위기가 발생한 원인을 여러 관점에서 조사한 이후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현대한국정치사’ 수업이 진행되던 당시에 우리나라 정치사에 다시는 없을 대통령 이 탄핵을 당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었고 수업이 주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에 매 수업마다 정치 이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기에 말이 중요했고 내 의견을 잘 전달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취득해야만 했다. 나는 매시간 수업이 끝나면 수업시간 토론 때 화두가 되었던 주제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다른 시각들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뒤졌다. 토론이 진행될 때마다 교수님께서서는 반대되는 의견들이 충돌하는 상황을 중재해 주셨고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해보도록 지도하셨다. 토론이 주된 수업방식이었기 때문에 나와 학우들은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다보니 매일 신문을 찾아보게 되었고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확장하게 되었다.

나는 매시간 수업이 끝나면 교수님께 수업 시간에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 질문했다. 교수님과 종종 토론을 하기도 했는데 교수님께서서는 아는 내용이 훨씬 많으심에도 나의 의견을 경청해 주셨고 동등한 위치에서 토론에 임해주셨다. 때로는 먼저 전화를 하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충해 주기도 하셨다. 그러한 교수님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수업에 대한 열의를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한번은 수업 내용에 대해 고민하던 중 해결되지 않는 점들이 있어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던 적이 있다. 교수님께서서는 정치의 뿌리는 철학에 있으며 철학을 공부해야만 정치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때부터 나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 철학자들의 저작들을 찾아 읽어보기 시작했다. 철학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정치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교수님과 학문적으로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셨던 존 로크의 ‘통치론’이라는 저작을 읽었는데 1689년에 출간된 책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다. 그런 순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보니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아져 더욱 책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

교수님이 책을 추천해 주시는 것이 학생들에게 큰 동기를 유발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계기였다. 2015학년도부터 우리학교에 비교과 수업으로 독서 수업이 생겨났는데 나는 2013학번이라 그 수혜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나도 ‘현대한국정치사’ 수업을 통해 교수님과 학생의 독서를 통한 상호작용의 진가를 알게 되었다. 우리학교 후배들을 위해 독서수업이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최위정 교수님이 출제하는 시험은 학교 내에서 까다롭기로 소문이 나 있다. 교수님은 항상 시험주 전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글을 작성하는 것을 시험으로 출제하신다. 교수님이 이런 시험 방식을 고수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대다수의 시험과 작문이 대부분 이런 방식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방식의 시험을 통해 철저하게 연습해야만 다른 시험들에서도 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최위정 교수님이 출제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여간 곤욕스럽지가 않다. 배운 내용에 대해 수십 번 반복해서 공부해야 암기가 가능하며 결론 부분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서 서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남의 생각을 빌려와 자신의 생각처럼 쓰는 것은 절대 금지라고 하시니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기에 시험을 준비하는데 다른 수업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게다가 이미 주어진 정답이 아닌 나만의 글을 써야 했기에 시험 문제에 대해 끊임 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은 고스란히 나 자신만의 지식과 사유로 남게 되었으며 그런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이 지성인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다.

나에게 ‘현대한국정치사’ 강의는 아주 큰 의미를 갖는 강의이다. 나에게 이 강의는 삶의 원동력이었다. 강의를 재밌으니 공부가 재밌었고 다른 수업들에도 열과 성을 다했다. 그 결과 2017년도 1학기에 학력최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수업에서 아쉬웠던 점을 꼽자면 나와 학우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진중한 주제에 접근한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이다. 모든 학우들이 정치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갖추고 수업을 들었다면 더 폭넓은 사유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며 토론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우리학교에 철학 강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학교는 인문대학이며 인문학의 뿌리는 철학에 있으므로 후배들만큼은 저학년부터 철학을 깊이 있게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약 이 수업이 다른 학생들에 의해 다시 개설된다면 그 수업에 참여하는 학우들이 언론에 나오는 피상적인 정보만을 공유하지 말고 본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에 임하길 바란다. 토론이나 논리학에 대한 학습도 선행하고 이 수업을 듣는다면 더 질 높은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누구나 인생에 큰 전환점들이 있다. 지금까지 나에게 많은 전환점들이 있었겠지만 올해 1학기에 내가 직접 설계하고 수강했던 ‘현대한국정치사’ 강의 또한 나에게 하나의 큰 전환점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인이 되어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순수한 꿈을 다시 꾸게 되었고, 금강대학교의 지식인으로써 내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제대로 일깨워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우수상

## 이머징마켓, 도대체 이 강의는 머징?

김의찬 / 국제통상통역학과

김지은 교수 '이머징마켓 매니지먼트'

“대학 생활 3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강의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머징마켓, 도대체 이 강의는 머징?

김의찬 / 국제통상통역학과

### 1. 강의 소개 및 수업내용의 유익성

이 강의는 '이머징마켓 진출 전략 수립하기'로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으며, 이머징마켓이란 개발도상국 가운데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시장으로 번역할 수 있다. 강의는 크게 이머징마켓의 정의, 이머징마켓의 특징,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기법(PEST 분석, SWOT 분석) 등 시장 진입 전략 수립을 위한 기법들의 개념 설명과 Cast study를 통한 적용 및 발표로 구성된다.

나는 이 강의를 통해 이머징마켓은 어떠한 기준으로 정의되는지, 해당 범위와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시장의 특징은 무엇이며, 진입을 위한 전략은 어떻게 수립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아울러, 매주 과제를 통해 해당 주차에 배운 내용 및 전략들을 적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이머징마켓의 특징 중 부패에 대해 강의를 했다면, 부패와 관련된 'corruption : The international Evolution of New Management (2009)'라는 영어 논문을 읽고 요약하고, Cast study를 통해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전략을 제시하는 과제가 있었다.

이 수업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조건 없는 원조만을 생각했던 나는 개발도상국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인식하게 되었다. 부패의 예를 든다면, 저개발 국가일수록 부패가 만연해있으며, 이러한 부패 속에는 중국의 판시 등 문화적 차이, 법적 규제의 부재, 법에 대한 교육의 부재라는 구조적인 문제들도 존재한다.

즉, 이 강의를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해 여러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영어 PPT와 영어 과제를 통한 영어 독해 및 작문 실력향상은 하나의 옵션이었고, 제시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이에 대한 PEST, SWOT 등의 기법을 통한 구체적 상황 분석, Ansoff전략 기법을 활용한 해결방안 모색, 문제에 대한 재정의라는 4단계 전략 수립의 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

## 2. 효과적인 수업방식

나는 한 학기 동안 주어지는 4번의 '팀별 과제'와 '팀별 발표'가 학습에 있어서 효과적이며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과제를 하기 위해 읽어야 하는 영어 논문은 평균적으로 20장 내외였으며, 이를 혼자서 읽고 분석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영어 실력이 부족한 나는 스스로 해석하고, 이해한 내용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었다. 그러나 각 팀에 한 명씩 있는 영어특기자 학생을 포함한 다른 팀원들과 서로 이해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독해가 어려웠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내용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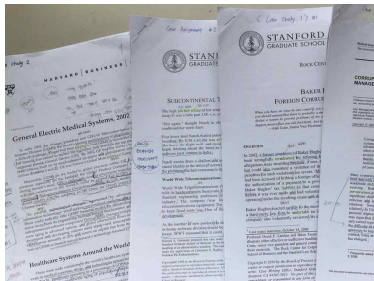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과제를 설명하자면, 과제는 주어진 논문(교수님께서 수업 주제와 관련된 논문 공유)에 대해 팀별로 Cast study를 하고, 분석한 내용을 각자 A4 4장의 분량을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팀 회의에서 우리는 논문에 제시된 케이스마다 문제 상황을 공유했으며, 공유한 답안이 문제인지 증상인지 함께 논의했다. 이어, 문제가 내포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이며 상호배타적인 대안들을 나열하고, 선택했다. 이러한 팀별 모임과 개별 문서 작성이 주어진 과제였다.

과제를 통해 강의 중 배운 내용을 복습 및 적용할 수 있었다. 이때 팀별 회의는 나처럼 영어 기초가 부족한 학생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다. 다른 전공공부, 학생회 활동 등으로 인해 영어 논문과 PPT를 이해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매 강의의 한 시간은 제출된 과제를 바탕으로 발표와 피드백 강의로 구성되었다. 교수님의 피드백은 근거가 부족한 추상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였으며, 피드백을 통해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다.

즉, 이 강의에서 진행되는 팀별 과제와 피드백 강의는 개인의 학업 성취도를 고려하며, 부족한 역량을 보완했고, 이를 바탕으로 강의에 대한 학습 효과와 몰입도를 높였다고 생각한다.



‘이게머징’ 팀 회의



논문 및 과제 일부

### 3.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

김지은 교수님은 우리 금강대학교의 졸업한 선배로서, 강의 내용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금강대학교의 특수적 환경 속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대한 경험적 노하우도 알려주셨다. 나는 학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개발학’과 관련된 진로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았다. 교수님과의 개인적인 연락은 메일 혹은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을 수 있었으며, 강의 중 진행되었던 과제에 대한 개별 피드백 및 면담은 학업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또한, 종강 전에 교수님은 수강하는 학생들과의 다과회를 통해 재학생의 크고 작은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 가슴 따뜻한 조언들은 후배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 4. 자신의 수업참여 노력

나는 개인적으로 이 강의를 내 진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수업만큼은 좋은 성적을 받고 싶었다. 학업 능력적인 면에서 누구보다 부족한 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매주 주어진 과제와 시험을 위해 항상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과제로서 논문을 주면, 나는 그 논문의 모르는 단어를 찾아가며 최소 세 번을 정독했다. 처음 읽을 때는 모르는 단어를 찾느라 문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문단마다 내용을 연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 번째 읽을 때면 신기하게도 문맥이 대강 이해가 되는 것을 느꼈다. 이후 이해된 내용을 바탕으로 반복해서 읽다 보면, 논문에 제시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 강의는 일주일마다 Cast study 분석 혹은 요약 과제를 줬는데, 나의 한 주는 주어진 논문을 이해하는 데 3~4일, 분석 및 정리하는 데 2일, 영어로 서술하는데 1일로 구성되었다. 항상 강의 전날(과제 제출 전날)은 밤을 새웠다. 왜냐하면,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단시간에 영어로 표현을 못 했기 때문이다. 나는 과제의 문장 90%를 영어 사전의 예문을 찾아서 서술했다.

또한, 이 강의는 한 번의 팀 발표가 존재한다. 우리 팀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분석 및 피드백 회의를 4차례 진행했고, 발표자였던 나는 발표 전날 빈 강의실에서 수없이 발표 연습을 했다. 또한, 당일 아침에는 새벽7시에 아침을 먹고, 강의실에서 최종 연습을 했다. 하지만, 발표 준비와 Cast study 영작 과제를 하며 밤을 새던 탓인지 정작 발표를 할 때, 목이 잠겨있고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쉬웠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 강의의 시험은 단순 암기가 아닌,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내 생각을 서술해야 하는 시험이다. 나는 시험을 위해 A4용지에 내 생각을 정리했고, 그 정리된 내용을 반복해서 읽은 후 시험에 임했다.

나는 영어 실력, 이해력, 분석력, 논리력 등 많은 면에서 부족한 학생이었기에, 강의 및 과제를 따라가기 위해 영어를 잘하는 후배, 분석을 잘하는 후배 등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모든 학우를 찾아가 끊임없이 질문하며 치열하게 공부했다.

## 5. 수업 중 보강이 필요한 점

나는 점층적으로 과제를 확대해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강철회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많은 학생의 이탈로 팀 구성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첫 과제는 개인으로 준비했고, 영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영어 논문을 읽고 이해하여 분석하고 영작하기에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짧았다. 나 또한 개강 직후의 교내 행사 외에는 과제를 했지만, 결국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제출했다. 교수님께서 항상 이 과목은 영어 실력과 관계없고, 영어로 평가하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었다고 강조하셨다. 그렇기에 영어 자체가 낮은 학우들을 고려하여, 영어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주면서 지속해서 과제의 양을 확대해나가면 이탈자가 적을 것이라 판단된다.

## 6. 예비 수강생들을 위한 조언

이 강의는 OT 때 약 35명이 있었지만, 수강철회 기간 직후에는 최종적으로 14명이 남았다. 한 학기 내내 수강하는 모든 학생을 힘들게 했으며, 어려운 과제와 발표로 인해 재학생들에게는 악명 높은 강의로 소문이 났다. 내 생각에 이 소문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만큼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았고, 누구보다 힘들게 공부하여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었기에 가장 특별했다. 강의 내용과 별개로 배운 것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시간 관리를 배울 수 있는 강의'였다. 매주 마감 시간이 정해진 상황 속에서 영어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일정을 관리해야만 했다. 나는 총학생회, 해외프로그램 공모전, 교내 근로 장학생 등 정신없는 삶 속에서 하루 24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이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둘째, '논리적인 글쓰기를 배울 수 있는 강의'였다. 나는 과제에 있어 해결책을 제시할 때 양비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추상적으로 서술한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모호한 결론 혹은 결론 자체가 없는 글을 썼기 때문이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와 일관된 논리를 통해 주장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셋째, '열정과 부족함을 배울 수 있는 강의'였다. 내가 이 수업을 함께하는 학우들에 비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만 한다는 것 자체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실력은 지난 시간 동안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벌어진 격차를 쫓아가고자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이머징마켓 매니지먼트는 '할 수 있었고, 해야 했던 공부'라고 생각한다. 강의에서 읽는 논문은 해외 대학생들에게는 매일 읽는 글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절대적인 학습량을 늘리며 피하지 않고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 또한 스탠포드, 하버드 대학의 자료를 읽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낄 수 있으니 꼭 한번 수강하길 추천한다.

## 우수상

### ‘함께’의 참된 의미

박재윤 / 국제통상학부

#### 최정순 교수 ‘설득과 협상의 기술’

“최정순 교수님의 설득과 협상의 기술은 주입식 수업이 아닌 소통과 협력이 기반이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실질적으로 협상의 기술에 대해 체득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실습을 해보며 배운 것을 응용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수업이었기에 위 강의를 선정하였습니다.”



## ‘함께’의 참된 의미

박재윤 / 국제통상학부

‘조별과제 잔혹사’, ‘팀플 혐오’ 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 위 단어는 힘든 조별과제 활동 때문에 생긴 말들로 조별 활동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쁜 결과를 내었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다수 대학생들은 조별과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소통과 협력의 부재로 인한 결과이며, 저 역시도 조별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조별활동에 대한 제 시각이 바뀐 것은 바로 2017년도 1학기 때 수강했던 최정순 교수의 ‘설득과 협상의 기술’ 이라는 강의 덕분이었습니다.

‘설득과 협상의 기술’은 사람과 사람간의 소통이 단절된 듯 보이나 더욱 소통의 힘이 중요해진 이 시대에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해야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더욱 잘 전달하는가를 배우는 수업 이었습니다. 수업은 모두 조별 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학기동안 7명 혹은 8명의 학우들이 같은 조가 되어 매주 새로운 토의 주제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이에 맞는 설득과 협상의 기법을 찾아 적용시키는 활동이 주가 되었습니다. 이 수업을 듣기 전 제가 했던 조별활동들의 결과는 그리 좋지 못하였습니다. 항상 팀의 리더가 모든 일을 진행했었고, 의견 역시 제대로 모아지지 않았 습니다. 단체 채팅방 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으며 결국 조원들 간의 사이는 틀어진 채로 한 학기를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득과 협상의 기술’의 첫 주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은 후 모든 활동이 조별로 이루어진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수업 철회에 대한 고민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피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 도전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학기가 끝난 후 이 수업을 되돌아보니 과정과 결과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수업에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 ‘함께하다’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설득과 협상의 기술’ 수업을 듣기 전에 조별과제를 할 때에는 혼자 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활동들을 왜 많은 사람들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이 수업을 듣고 나면서 저는 ‘함께’의 중요성을 조금이나마 스스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위 수업은 교수님을 향해 앉는 구조가 아닌 서로의 조원들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게 자리를 앉는 구조였습니다. 교수님의 간단한 설득과 협상의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저를 비롯한 모든 조원들은 교수님께서 주시는 토의 활동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 의견의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생각했던 답은 다른 조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다른 답으로 바뀌었고, 어느새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증거의 원칙’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조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사례가 가장 적절하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원의 생각을 들어본 후 다른 의견에 더욱 공감을 하였고, 다른 의견에 더욱 더 힘을 싣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설득과 협상의 기술’은 단순한 지식전달의 목적을 갖고 있는 수업과 달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수업인 것 같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보는 수업 방식 역시 모두에게 효과적이었지만 저는 생각을 이야기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표현하는 다양한 수업 방식 역시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우선 공정하게 매주 돌아가면서 조별 의견을 발표하는 방법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조별 활동을 할 때 가장 기피하는 역할이 발표자의 역할입니다. 발표자는 많은 이들 앞에서 이야기도 해야 하고, 그 누구보다 발표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에 부담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은 모두가 발표자이고, 모두가 수업시간 동안 발표를 해야 하므로 더욱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고, 의견 수렴에도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발표 방식 역시 단순한 정보 전달의 발표가 아닌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연극, 실제 배웠던 기법을 활용한 플리마켓 활동, 실제 시장에 나가서 조원들과 함께 물건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물건 가격에 관한 협상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플리마켓 활동 당시 수업을 듣는 학생들 모두 자신의 물건을 갖고 나와 매매나 교환을 하였고, 이 당시 자신이 사용했던 기법들을 정리하여 조원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실제 논산전통시장에서 저희 조는 꽃집, 떡볶이 가게, 찜뽕가게에 방문하여 ‘한 발 들이밀기 전략’, ‘일관성의 원칙’을 사용하여 가격을 깎거나 물건 서비스를 받는 등 책 밖으로 나와 실제 경험을 통해 매우 효과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수업기법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수업 시간 자리의 구성 역시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수업 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강의실의 자리 배치도를 살펴보면 모든 책상과 의자들은 칠판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의 자리 배치는 조원들끼리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조별활동 자리구성이 추가 되었고, 모든 책상을 원형으로 만들어 수업에 참여하는 모두가 토의 및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 역시 자주 수업에 사용 되었습니다. 저는 책상과 의자의 자유로운 배치가 수업과는 큰 상호관련성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생각이 매우 단순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유로운 자리 배치를 통해 타인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공감할 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면 교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교수님께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질문을 할 수 있는 크나큰 환경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선 매 시간마다 모든 조의 자리에 들려 토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조원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자유로운 자리 배치에 대한 의견 역시 교수님으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선 첫 시간부터 조별활동 자리를 원하셨고, 처음엔 매우 어색하였지만 학기가 마무리 될 즈음에는 조원들은 물론 교수님을 포함한 모든 수업 구성원들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선 수업시간에 진행된 플리마켓 활동, 연극 활동, 시장 방문 활동 등에 같이 참여를 하시어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집중도를 더욱 높여주셨습니다. 특히 플리마켓 활동 당시 교수님께서 직접 기르신 양파를 가지고 오셔서 양파 판매를 학생들과 함께 하시기도 하였고, 교수님의 다른 물건과 학생들의 물건을 교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이 아닌 함께 소통을 하며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선 많은 이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노력 중에서도 수업에 참여하는 저의 노력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득과 협상의 기술' 수업을 듣기 전에는 무조건 교재로 선정된 책의 일정 부분을 읽어 와야 합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조원들은 자신이 읽은 내용을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설명을 해주고, 부족한 설명들을 보충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만약 이 활동을 할 때 제가 책을 읽어오지 않았다면 저는 조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며, 저 역시도 조원들이 이야기 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 날의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수업 준비의 가장 기본인 책 읽어오기는 필요이상으로 중요하고, 수업 전 꼭 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매 수업 시간 마다 교재를 꼼꼼히 읽어 갔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조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만들어 가서 같이 답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질문을 만들어 갈 때에는 혹시 나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걱정은 괜한 걱정이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에 모두들 같이 공감해주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었으며 제 덕분에 책의 내용을 더욱 이해할 수 있었다고 조원들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조에는 더욱 더 많은 질문들이 나왔고, 저희들은 서로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을 주고받느라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수업 준비로는 매주 의견을 나눈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희 조는 매주 담당 서기를 정하였습니다. 서기는 매주 다른 사람이 맡았었고, 수업 후에 토의 내용을 깔끔히 정리하여 학교 학습관리시스템사이트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저희 조원들은 매 수업시간이 끝나면 늦지 않게 자료를 올렸습니다. 또한 수업 당시 진행했던 자료가 부족하다 싶으면 단체 채팅방에서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따로 나누어 내용을 보충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수업 준비에 임하였기에 더욱 유익했던 시간을 선물 받은 것 같습니다.

‘설득과 협상의 기술’의 시험 역시 제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오픈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오픈북 시험을 본 적이 없었기에 신기하기도 하였고, 한편으론 오픈북 시험은 어떨까란 궁금증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경험한 결과 오픈북 시험의 가장 큰 해답은 바로 제 자신의 경험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선 시험 한 주 전부터 시험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다양한 설득과 협상의 기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하고, 그 기법과 관련한 경험 및 예시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설득과 협상의 기법들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며, 이러한 것들을 몇 마디의 문장으로 깔끔히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설득과 협상의 기법입니다. 저는 제 삶을 곰곰이 생각해보았고,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내용을 다양한 기법의 옷을 입혀 주어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익숙해졌고, 편해져갔습니다. 또한 이 수업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고픈 욕심이 나기도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욕심들 중 한 가지 수업에 바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장을 뽑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수업은 각 조마다 조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수님의 전달 사항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장이라는 팀의 리더가 생겨 버리면 조장이 아닌 다른 조원들은 조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자신의 책임을 저버리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해야 더욱 의미가 강해지는 조별 활동에서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타인에게 기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신의 성장에 크나큰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에 모든 조에 조장을 두는 것 보단 모두가 조장이 될 수 있다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첫 수업 당시 정한 '반장'의 역할을 조금 더 크게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지만 서로의 의견에 공감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욱 필요하고, 이러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길러야 합니다. 그렇기에 '설득과 협상의 기술' 수업은 우리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매우 필요한 수업입니다. 위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이 수업이 더욱 재밌게 진행 되도록 큰 역할을 한다는 책임감을 꼭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함께 대화를 주고받는 것에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면 더욱 유익한 수업이 될 것입니다.

함께하다'라는 말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말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헌신적으로 타인을 위해 희생을 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동의를 해주어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학기동안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진심으로 공감을 해보니 '함께하다'의 참된 의미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 어렵게 '함께하다'의 의미를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은 경험해 보지 않고 멀리서만 보면 무섭게만 느껴집니다. 저 역시도 이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겁을 먹었고 두려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 '함께하다'의 의미를 알았으니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조별 활동에서도 이 수업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이 '함께' 하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설득과 협상의 기술 시장 방문 사진>

우수상

## 우리 경제의 모습과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溫故而知新

박하영 / 국제통상통역학과

김준한 교수 '한국경제발전사'

“학생 스스로 구축하기 어려운 ‘한국의 주요 산업의 전체적인 개관’을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은 강좌였다.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소수산업에 국한되지 않은 한국 경제 전반을 공부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 우리 경제의 모습과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溫故而知新

박하영 / 국제통상통역학과

보통 ‘산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차적으로 하늘 높이 솟은 굴뚝이나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 시설을 떠올리기 쉽다. 의외로 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매일 아침에 보는 뉴스, 여유로운 커피 한 잔, 심지어 대학에서 듣는 교수님의 강의까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바로 산업의 산물인 만큼, 우리의 삶은 이를 제외하고는 논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이 모두가 처음부터 완성되어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한때 세계 최빈국이던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떤 경로를 거쳐 지금의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되어 왔을까? 한 국경제발전사 시간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산업들을 살펴보면 이 의문을 풀 수 있었다.

### 1. 왜 한국경제발전사인가

이전부터 나는 국제통상을 전공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에 관한 제반 지식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거나 전체 수출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여러 강의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간다. 그러나 그것도 전 기전자·반도체 산업이 아니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던 조선 산업의 동향에 국한되어 산업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기회는 없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수출품목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반도체,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이 상위 5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도 정작 자동차 산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선박해양구조물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는 설명할 수 없는 파편화된 지식만을 갖추게 된 셈이다. 이런 까닭으로 혼자서라도 학습할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운이 좋게도 한국경제발전사 교과목이 신설되었다.

한국경제발전사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첫 2주에 걸쳐 한국의 발전과정과 세계의 경제상황을 개관한다.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경제정책 기조와 이론,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한국경제가 걸어온 길을 살펴본 뒤엔 오늘날 글로벌 경제 환경과 국제 이슈, 해외 주요 경제권의 동향을 알아보는 것이 강의내용이다.

다음으로 학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제조업종별 과거와 현재이다.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건설, 농업, 서비스업을 다루며 각 산업의 개요와 역사, 발전과정, 그리고 위상을 알아본다. 철강 산업 강의시간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는 가장 먼저 철강 산업이 태동하게 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7년간 종합경쟁력 세계 1순위를 기록한 POSCO도 아닌 '철'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달 크기만 한 내핵의 91%가 철이며 고구려와 신라가 제철을 기반으로 창건된 국가이다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들어보면 때문에 제철기술이 곧 국력이며 역사적으로도 철강 산업 주도권 변천사가 곧 세계경제 패권 변천사와 다름없다는 산업의 중요성을 논하는 흐름으로 자연스레 넘어간다. 대일청구권자금과 고 박태준 명예회장의 중이마패 등 최초의 제철소 건설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를 곁들이면서 철강 산업이 걸어온 길과 대내외 환경변화의 3대 이슈를 살펴보다보면 어느새 철광석 원료 산업이 높은 가격수준으로 철강사간 경쟁이 심화되었으니 원료자금도 제고 노력 강화와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렇게 매 시간 산업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다루는 것이 우리 경제에서 빠질 수 없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 고도성장의 그늘과 당면과제, 제4차 산업혁명에의 대응이다. 에너지의 경우 화석 연료의 고갈이나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문제 등 주요 이슈, 구체적인 에너지 밸런스 흐름도나 국내 소비 추이는 물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대책과 의무할당제도(RPS)등 각종 정책을 다룬다.

강의를 들은 지금은 전반적인 시야가 한층 더 넓어진 느낌이다. 이해를 돕고자 위에서 철강산업과 에너지 문제로 다룬 내용을 일부 소개했지만 이 역시 최대한 간추린 내용이며, 16주라는 제한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강의시간에 다룬 내용은 광범위하면서도 결코 깊이를 잃지 않았다. 강의를 진행하신 김준한 교수님은 오랫동안 연구자로 계시면서 경제 전반, 특히 에너지와 건설, 개발과 환경 분야의 전문가로 수강생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해주셨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한국 대사관에서 경제조사관으로 계시면서 본 당시 중동의 경제 이야기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 이야기해주셨음에도 강의가 끝나게 못내 아쉬울 정도였다.

만일 나 혼자서 이 모든 내용을 공부했다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부단한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시기적절하게도 필요할 때 이 강의를 만나 현재 한국 경제를 구성하는 산업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금의 모습과 위상을 지니게 되었는지 알게 된 점은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는 기회였다. 향후에도 이같은 교양강의가 많이 개설되었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이다.

## II. 소통 중심의 자유로운 강의

본 강의는 선정된 두 권의 부교재가 있으나 심화학습을 위한 참고용으로, 강의는 그 주의 PPT 교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매주 수업 말미의 30분 가량을 할애한 Discussion 시간은 그날 다룬 주제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고, 교수님은 그에 대답하며 마치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질문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강의의 연장이다.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것 외에도 하나의 주제에 대해 학생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기도 하다.

한국경제발전사는 한 학기동안 한 번의 개인발표와 중간고사를 대체한 리포트, 그리고 기말고사가 있다. 개인발표와 리포트는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강의시간에 다루어진 범주 안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리포트를 작성하고 학생들 앞에서 역시 자유로운 방식으로 발표했다. 다른 수강생의 경우 특정 산업의 현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거나 당시 이슈였던 Brexit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고,

나는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을 발전과정에 따라 국가주도형, 국가보조형, 산업시황형 세 가지의 성장유형으로 분류했는데 교수님께 독특한 관점이라고 평가받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러나 정말로 독특했던 건 교수님의 기말고사 문제였다. 저작권 문제로 여기에 그대로 옮기는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다. “귀하는 A국 경제자문관으로 초빙되었다. UN 등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A국의 경제상황은 이러하데 귀하에게 10년간의 경제발전전략을 요청하였다.” 읽으면서 짐작했겠지만 답이 없는 문제다. 처음 맞닥뜨리면 막막할 수 있겠지만, 강의에서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을 다루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아시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발전과정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시험문제는 마지막 3번이었다. 한국경제발전사를 수강하면서 느낀 소감, 그리고 이제까지 있었던 강의와 토의 활동이 앞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내 생각을 묻는 문제. 이런 방법으로 학생들의 피드백을 수렴하는 문제는 적지 않게 접했지만 직접적으로 ‘배운 내용을 앞으로 무엇에 쓰겠는가’를 질문받은 건 처음이라 꽤 고심했던 기억이 난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도 과연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학업에, 졸업 후의 진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굳이 전공강의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 III. 강의의 이모저모

강의 내내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관심이 있는 부분을 편하게 질의 응답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매 순간 성실하게 임하시는 교수님의 모습도 좋았다. 학생들의 이해와 학습을 위해 여러모로 신경을 써 주셨는데, 내 경우에는 특히 마지막 강의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강의를 듣지 못하게 되자 교수님이 강의를 손수 녹음한 파일을 보내주셔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었던 일이다. 어려운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여주신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매번 다른 테마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강의인 만큼, 미리 해당 산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현재 동향과 같은 사전 지식을 쌓아가면 같은 강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다. 나도 예전부터 공부해왔던 조선과 철강 산업에 대해 그동안 가져왔던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 교수님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었고, 생소한 분야였던 건설 산업도 경험에서 우러난 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많은 경험이 되었다. 강의 말미의 Discussion 시간 역시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한 여러 관점에서의 의견과 대안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강의 그 이상의 것을 얻어갈 수 있다.

#### IV. 예비 수강생들을 위한 조언

강의는 교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강의 외에도 여러 방식으로 보충하고자 한다면 교수님이 제시해주신 다음의 두 서적을 참고해도 좋다. 오원철 저 '한국형 경제건설'과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가 지은 '한국경제 60년사'이다. 모두 적지 않은 분량을 자랑하나 그때그때 필요한 분야의 지식을 얻는 데에는 더없이 좋을 책이다.

또한 산업별로 진행되는 강의인만큼 시간의 흐름을 따른 통시적 산업발전사에 관한 고찰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근현대 시기의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을 알아보는 별도의 보강과정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교수님의 뛰어난 강의도, 수많은 보충 서적도 좋지만 이 강의를 효율적으로 수강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는 말처럼 마지못해 참여하기보다 이 분야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우수상

## 나의 가치를 알려준 고마운 강의

이소현 / 사회복지학과

김종오 강사 '퍼스널브랜드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워크숍'

“저번 학기 방향하던 나를 되돌아보게 하고, 정서적으로 지지가 된 고마운 강의였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음.”



## 나의 가치를 알려준 고마운 강의

이소현 / 사회복지학과

1년의 휴학을 마치고 복학한 3학년 1학기. 휴학하는 동안 얻은 건 자존감 하락과 진로에 대한 혼란뿐이었다. 무엇을 시작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보통 청소년기 때 겪는다는 정체성 혼란을 겪는 듯싶었다.

책을 빌리기 위해 도서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였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퍼스널 브랜드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워크숍』이라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중 이가 붙여져 있었다. 강사는 ‘책쟁이’ 김종오. 평소 그런 공고를 잘 살펴보지 않았었는데 당시에 있던 곳이 ‘도서관’이어서 그랬는지 강사의 이름이 눈에 띄어 읽어보게 되었다.

이 워크숍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자기표현 클리닉> 프로젝트로 준비한 것이며 총 6회에 걸쳐 구성되어있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강의가 진행되는데 기본적인 ppt제작 스킬부터 디자인, pt하는 방법, 공모전 기획서 쓰는 법, 포트폴리오 제작, 자기소개하기 등으로 이루어졌다. 평소 PPT 제작에 있어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강의 정보를 보며 솔깃했다.

그러나 이 워크숍을 꼭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자기표현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대학생활 전반에 걸친 동기부여의 멘토링을 제공”이라고 적혀있는 한 줄 때문이었다. 자존감 낮고 뭘 해야 할지 혼란한 이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그날 바로 워크숍을 신청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강의실에 들어서면 항상 제일 먼저 와 계시는 강사님께서 그날 수업할 자료가 담긴 USB를 건네주셨다.

USB를 건네받고 나면 늘 앞자리에 앉았는데, ‘나를 열심히 듣고 있어요, 이 강의가 재미있어요.’를 표현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다.

1회차부터 마지막 6회차까지 모두 PPT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PPT를 제작하는 방법과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었다. 하나의 예시 템플릿을 가지고 그 템플릿을 똑같이 따라 만들어 보는 것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처음에 강사님께서 먼저 어떻게 만드는지 시범을 보여주셨다. 노래를 틀고 똑같은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겠다는 말에 설마 한 곡 안에 다 하겠어?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강사님께서 노래 한 곡이 다 끝나기도 전에 샘플과 똑같은 슬라이드를 만들었고 프레젠테이션에 비치는 그 과정은 마치 유튜브 혹은 SNS에 ‘3분 안에 보는 장인이 작품을 만드는 방법’과 같은 제목으로 올라오는 영상을 보는 듯 했다.

강사님께서 슬라이드를 완성한 후 내뱉은 한 마디.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금방 할 수 있어요.” 기대가 되었다. 지금껏 그래도 학교에서 발표 때문에 얼마나 많은 PPT를 만들어 왔는가. 그때마다 밤을 새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밤을 쉴 필요가 없어진다는데! 다이어트 보조제를 사다놓고 벌써 다이어트에 성공한 기분만 날 설레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대단했다. 우선 PPT를 제작할 때 많이 쓰는 단축키를 설정하였고 그 단축키에 들어가 있는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써야 깔끔하게 빨리 슬라이드를 제작할 수 있는지 배웠다. 이를 알기 전에는 하나하나 일일이 마우스로 노가다를 했다면 이제는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마치 5를 다섯 번 더해서 25를 구해냈다면 이제는 구구단을 알아 5x5는 25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배운 스킬들로 처음에는 시간제한 없이 한 번 샘플을 따라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강사님의 설명과 함께 샘플을 통해 감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런 후에 ‘스타벅스 챌린지’라는 것을 샘플을 따라 만들어 빨리 완성한 사람 순서대로 3등까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받는 챌린지이다.

그 순간 사람들 사이 묘한 경쟁감도 생기면서 승부욕과 함께 노래 안에 완성해 보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모두가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것에만 초집중을 하게 된다. 이 챌린지는 원래 내 능력이 6정도라면 그 한계치를 넘어 10을 수행하게끔 만든다. 그래서인가 그 짧은 시간에 ppt 만드는 속도가 빨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 수행하는 것. 그리고 꾸준함. 이것이 강사님께서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이 워크숍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한다. 워크숍에서는 PPT를 제작하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 동기부여를 위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강사님의 꿈은 스티븐잡스와 같은 최고의 프레젠테이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이 된 첫 PPT를 보여주셨다. 그 PPT는 강사님이 대학생 때 만든 것이었고 누가 봐도 어설퍼다. 하지만 그것을 시작으로 하루 8시간, 10시간 혹은 더 많은 시간을 PPT연습에 투자하였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연습을 해오고 계신다 하였다. 그리고 강사님의 블로그도 함께 보여주셨는데 블로그 글을 보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글을 올리고 있다. 강사님 자신이 어떤 하나에 미친 듯이 빠져 몰두하고 그것을 꾸준히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움을 직접 경험해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를 꼭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해 주셨다.

또한 과제를 내어 주셨는데 첫 과제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이수한 강의들을 정리해 PPT로 제작하는 것이었다. 이 과제는 ppt제작 연습을 위함과 자신의 학교생활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하였고, 무엇보다 무언가를 오랫동안 붙잡고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했다. 과제를 하면서 내가 총 몇 학점을 이수를 했고, 그동안의 과제들은 어떻게 해왔는지, 1학년, 2학년 지나면서 발전을 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퇴보한 부분이 있는지 등 이수 강의들뿐만 아니라 나 자체를 되돌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자료를 정리하고 ppt에 담다보니 어느새 슬라이드의 수는 53개를 채우게 되었다. 그렇게 완성된 ppt는 지금 다시 보아도 너무나도 뿌듯한 결과물이었다.

두 번째 과제는 나의 이야기에 대해 써오는 것이었다. 그저 단순히 나의 이야기를 쓰는게 아니었다. 강사님께서 과제를 주기 전 어떻게 하면 청중을 사로잡는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PREP기법'이었는데,

P(Position), R(Reason), E(Evidence), P(Position)의 약자로 ‘Position’은 입장 밝히기를 뜻한다. 이는 서론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주장 또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제시한 후 ‘Reason’, 주장하는 내용에 타당한 이유 부분을 제시한다. 그다음 ‘Evidence’, 현실적으로 주장에 대한 보충, 부연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한 후 마지막 ‘Position’, 결론을 맺으며 다시 한 번 주장하는 내용을 강조한다.

강사님이 예시로 PREP기법을 통해 자기소개를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200%를 하는 남자 김종오입니다.”를 ‘Position’으로 한 자기소개는 한 학기가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에 남을 정도이다. ‘200%를 하는 남자’인 이유와 증거로는 ‘주인의식’을 갖고 남들이 100을 할 때 200을 해낸다는 경험을 이야기했으며 마지막 다시 한 번 “지금까지 200%를 하는 남자 김종오였습니다.”로 입장을 다시 강조하며 끝을 맺었다. 이러한 틀을 가지고 워크숍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써왔고 제출하였다. 강사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읽으시고 그에 맞는 발표 PPT를 직접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제작해 주셨다.

우리는 강사님이 만들어주신 PPT를 이용해 마지막 날 한 명씩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 피드백은 익명으로 종이에 써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솔직하고 객관적인 피드백이 오갈 수 있었다. 마지막 발표를 통해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 발표시간이 내가 이 워크숍을 들은 이유와 의미를 찾게 된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에 공감하고, 또한 자극을 받으며 내가 나의 이야기를 발표할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나를 포함한 모든 수강생들이 서로의 강사였으며 조언가였고, 수강생이었다.

6주가 길다면 길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마지막 강의를 듣고 나왔을 때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작성이든 ppt제작이든, 자기소개든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감이 잡힐 즈음 끝이 난 느낌이라서 한 2주 정도만 더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자기소개’, ‘공모전’ 등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강의였던 만큼 ppt제작 기술, 기법

등 유익한 내용들이 많았지만 그 ppt를 만드는 지금 현실의 '목적'이 없어 워크숍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강의를 듣는 의지가 약해지는 듯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았다. 때문에 정말 진행되고 있는 '공모전'을 선정하여 이를 위한 ppt를 함께 제작해보거나 피드백을 받는 식의 강의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수강생들 또한 열정적인 강사를 따라 함께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 워크숍이 또 다시 개설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시 한 번 개설이 된다면 17년 초반의 나처럼 자존감이 낮거나 방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꼭 이 워크숍을 신청해 보길 바란다. 강사님이 내어주시는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꾸준히 워크숍에 참석한다면,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 이며 이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한 나를 금강대에서 PPT의 장인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실력 향상을 경험해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을 것이다.



## 장려상

### 금강대학교, DROP The BIT !!

김민섭 / 응용불교학과, IT소프트웨어

장성훈 교수 '프로그래밍 언어, 자료구조'

“이 강의를 듣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도와 해결능력이 전에 비해 확실히 향상함을 느꼈고 단순히 학습이 한 학기에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수업을 듣고 조를 이뤘던 사람들과 강의 이후 방학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취업동아리 OOPS와 이음새 금알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상담실 앱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나 뿐만 아니라 같이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이후 IT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이나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강의이기에 선정하였다.”



## 금강대학교, DROP The BIT !!

김민섭 / 응용불교학과, IT소프트웨어

### 1. 강의소개 및 수업내용의 유익성

지난 학기 금강대학교와 전문 IT 교육기관인 비트교육센터와 협약을 맺어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금강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가 열리게 되었다. 비트교육센터에서 열리는 이 강의는 비트교육센터의 단기교육 코스로 프로그래밍 언어와 자료구조를 동시에 신청을 해야만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이다. 또한 이 과목을 수강 후 비트교육센터의 자격증 시험인 BSPM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고 이를 통과 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기교육과정이 끝난 이후에는 취업과 직접 연계되는 고급과정에도 참가할 수 있다.

이 단기코스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C언어와 JAVA,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을 중점으로 가르친다. 이 교육과정은 학원에서 수강한다면 인당 1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지불하고 들어야하는 그 가치가 높은 강의이다.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IT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은 이후 듣는 전공수업을 더욱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기초강의라고 볼 수 있다.

### 2. 효과적인 수업방식

이 강의는 비트교육센터의 단기과정의 커리큘럼에 따르고 매일 3시간씩 매 주 3번, 15주 동안 진행 되었다. 이 15주 동안 C언어, JAVA,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을 배우는데 처음 강의를 시작하기 전 비트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테스트를 보고 간단히 실력을 테스트 했다.

그리고 이 테스트의 성적에 따라 조를 구성하는데 한 조에는 다양한 실력을 가진 팀원들로 구성된다. 코딩을 할 때, 마치 수학문제를 푸는 것처럼 같은 결과라도 개인 스타일에 따라 과정이 다르게 된다. 조를 구성함에 따라 조원들은 서로 코드를 공유하여 다양한 방법의 풀이과정을 접하고, 그 중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의 풀이를 찾게 된다.

### 3.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

비트교육센터는 다른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이미 많은 학생들을 가르친 바탕을 토대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특히 교수는 비트교육센터의 베테랑 강사가 파견 나와 수업을 진행했다.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 내용 중 무엇을 어려워하고 어디서 막히는지 쉽게 알고 조별 관리를 통해 학생들을 관리한다. 학기 초, 교수님 주도하에 주말에 함께 치킨을 먹는 등 학생들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하여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교수는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이론수업을 학생들이 지겹지 않도록 자신의 경험과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풍부히 사용하여 예를 들며 수업을 진행했으며 학생 개개인마다 약점과 장점을 단번에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조를 바꿔 서로를 보완해줄 수 있는 조를 구성을 해주었다. 또한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에 좀 더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매 번 수업시간마다 직접 만든 문제를 내 주어 학생들이 응용력을 기를 수 있게 하였다. 학생들은 교수님이 짜준 조를 잘 활용하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과제 중 모르는 부분은 먼저 조와 상의를 하고 해결하지 못했으면 교수님께 물어봐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끊임없는 교수와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 후 과제 수행까지 잘 연계될 수 있었다.

### 4. 자신의 수업참여 노력

프로그래머에게 가장 중요시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C언어와 JAVA 그리고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나에게 큰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수강 전부터 수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스터디를 지향하시는 교수님의 수업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공부 방법을 터득하는 기회가 되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 스터디를 교수님께서 권유해주시고 조도 직접 구성해주셔서 교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스터디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늦은 수업 시간으로 인하여 교수님 주도하의 스터디는 실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수업을 소화하고 과제를 풀기 위해서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스터디를 하게 되었다.

나는 평소 학우들과 서로 모르는 점을 물어보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던 나의 공부 방식을 정식적인 형태인 스터디에 적용하였다. 스터디는 조원들과 시간을 조정하여 일주일에 2번, 각 1~2시간 진행하였다. 수업을 들은 후 수업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서로 도와주고, 수업 후 매일 있는 과제를 미리 각자 풀 어온 후 각자의 코드를 공유하는 식으로 공부하였다. 스터디를 하면서 혼자서 문제를 풀 때와 달리 다양한 풀이의 코드를 접하면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답을 찾게 되었다.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풀이를 보면서, 쉽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보고 고려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응용력이 길러지게 되었고 이것을 토대로 어려운 문제들도 풀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스터디의 장점은 조원들 모두가 각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고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생각을 스터디 전에 미리 하고 온 후에야 발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한 두 명의 조원만 문제를 풀어오거나 했을 땐, 스터디가 그저 답을 공유하는데 그쳤다. 나는 수업을 듣기 전부터 수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 있었고, 열정이 많아 과제를 해결하는 스터디도 재미있었고, 열의 있게 참여하였지만 간혹 몇몇의 학우들이 의무적으로 스터디를 참여하여 스터디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부분이 스터디를 진행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 이었다.

하지만 스터디의 효과를 체감한 학우들은 많았다. 스터디를 통해 수업에 재미를 느낀 학우들은 프로그래밍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수업 종료 후 이러한 학우들을 중심으로 스터디를 구성하였다. 이 스터디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발전하여 실질적인 결과물인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창업동아리 OOPS와 이음새 금알로 이어나가고 있다.

## 5. 수업 중 보강이 필요한 점

앞서 말했듯이 강의는 현재 비트교육센터에서 교육되고 있는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져와서 진행된 수업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은 그 자체로 완성도가 있다. 다만 수업이 오후 7시부터 10시에 배정됨에 따라 비트교육센터에서 지향한 학생들끼리의 스터디가 잘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한 학기 수강시간은 비트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수강시간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하지만 수업 시간 부족의 한계는 1학과와 2학기에 연계된 수업을 개설함으로써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연계된 수업 수강 후에 비트교육센터에서 도입한 권위 있는 자격증인 C Programming Master 및 JAVA Programming Master 자격증을 취득으로 연계된다면 타 대학의 학생들에 버금가는 프로그래밍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 6. 예비 수강생들을 위한 조언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IT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강의를 신청하는 인원들 중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타과생들과 IT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 중 프로그래밍 입문인 학생들은 강의가 기초 이론수업과 실습수업을 동시에 할 뿐만 아니라 각 팀에 실력 있는 학생들을 넣어주기 때문에 걱정 없이 따라갈 수 있다. 이미 다른 강의를 통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 학생들도 체계적인 수업방식을 통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조별과제들을 통해 다른 사람의 코딩스타일을 보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강의가 기본적으로 6학점 9시간으로 이루어져있고, 15주라는 기간 동안 C언어, JAVA,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을 모두 배우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이 없다면 이수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한다면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함께 기말고사와 함께 보는 비트자격증 시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트자격증까지 일석이조의 성과를 볼 수 있다.

## 장려상

### 재무제표분석 : 숲을 보는 방법

송우현 / 회계학과

장민호 교수 '재무제표분석'

“재무제표분석은 회계학 전반을 정리하며 회계학을 이루는 숲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강의이기에 추천하고 싶어서 선정하게 되었다.”



## 재무제표분석 : 숲을 보는 방법

송우현 / 회계학과

### I. 들어가며

재무제표는 기업의 특정 시점 경제적인 상태와 일정기간 동안 있었던 경제적 활동을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는 종합 보고서이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흔히 '성적표'에 비유되고는 한다. 학생이 성적표를 통해 학업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듯이 기업은 재무제표를 통해 재무상태와 경영성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업현황을 파악하고 나면 학업계획을 세울 수 있듯이,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해 그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파악하고 투자여부 등을 계획할 수 있다.

### II. '재무제표분석'의 소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주석으로 구성된다. '재무제표 분석'은 가치평가에 기반하여 재무제표의 각 항목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아가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이나 투자위험을 도출하고 이익을 예측하며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배운다.

회계학과 대부분의 전공과목들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초점이 있다. 재무제표를 이루는 계정과목들의 회계처리를 배우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너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다루는 강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나무가 이루는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무제표분석'은 회계학 전반의 학습내용을 정리하며, 회계학을 이루는 숲을 보게 해주는 강의이다.

### Ⅲ. '재무제표분석' 수업내용의 유익성

주식투자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워렌 버핏의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뛰어난 투자 실력과 기부활동으로 흔히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은 세계적인 거부로 손꼽힌다. 워렌 버핏의 주식투자방법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분석이라고 한다.

재무제표에는 기업이 설립되어 재무제표의 작성시점까지 수행한 경제적 행위의 재무적 결과와 발자취가 반영되어 작성된다. 재무제표분석은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 기업의 상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재무제표 분석이 투자자에게만 유용한 것은 아니다. 경영자, 주주, 채권자, 증권분석가, 거래처, 금융기관, 노동조합, 정부 및 일반 대중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과 관련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재무제표분석인 것이다.

'재무제표분석'은 한 기업을 다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전공자에게는 그동안 공부했던 회계학적 지식을 정리하고 그 지식들이 어떤 숲을 이루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강의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을 분석하면서 그 자체로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좋은 밑바탕이 되는 강의였다.

### Ⅳ. '재무제표분석'의 효과적인 수업방식

재무제표 분석 방법의 이론을 배우고, 교재의 연습문제를 통해 재무제표 분석을 연습하고,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발표하는 강의이다. 발표는 거의 매주 이루어지는데 발표를 통해서 한주의 학습내용을 정리하고 실제 기업을 분석하면서 강의의 현장감을 높였다. 또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각기 다른 기업을 분석하므로 학생들이 다양한 기업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취업 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V.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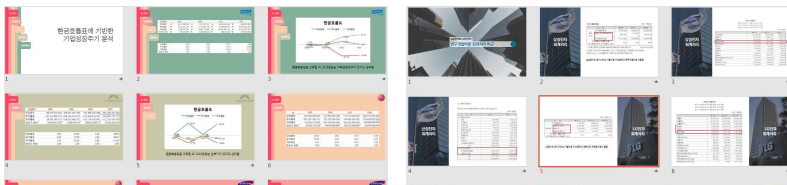
‘재무제표분석’에서는 각 주의 수업이 끝날 때마다 발표과제 이외에도 LMS에 수업내용을 요약해 글을 올리는 과제가 주어졌다. 수업내용의 요약 이외에도 수업시간 내에 하지 못했던 질문사항 등을 함께 올리고는 했다. 교수님께서는 LMS에 올라온 학생들의 글을 확인하고, 답변을 남겨주시며 수업시간 외의 시간에도 학생들이 원활한 학습을 돕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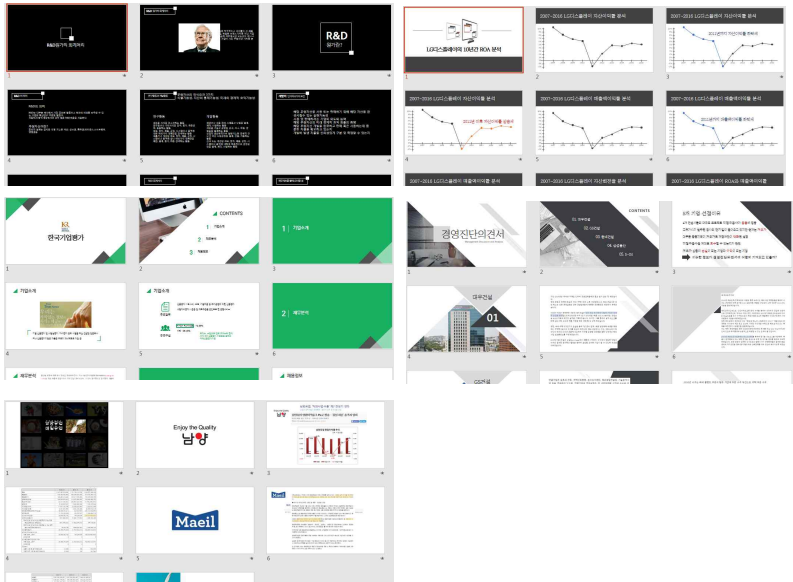
또한 매시간의 개인 발표 이후에는 질문답변 시간을 가져 교수-학생간은 물론 학생-학생 간에서도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 VI. 강의를 통해 재무제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업참여 노력

학교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회계사 수험공부를 하면서 수년간 회계학을 배웠지만 미시적으로 계정과목들의 회계처리방법 하나하나만을 학습하고 외웠을뿐 미시적인 부분이 그리는 전체를 학습할 일이 없었다. ‘재무제표분석’을 통해 그동안 학습내용을 정리하며 숲을 보는 연습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거의 매주 발표과제가 주어졌는데 아래와 같은 발표자료를 준비하며 한 주 간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하는 과정을 가졌다. 또한 현실 기업의 공시된 자료를 강의에서 배웠던 방식으로 분석하면서 현장감 넘치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강의를 통해 실제적인 재무제표를 분석하면서, 배우고 외웠던 회계처리 방식들의 이론이 어떻게 재무제표 상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적용되는지를 체득할 수 있었다.

## Ⅶ. 보다 나은 '재무제표분석'을 위해서

'재무제표특강'은 보통 지난 주차 과제발표-이론학습-연습문제풀이-과제제출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합리적인 수업구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별 과제를 발표 시간과 질답변 시간, 교수님의 추가 설명시간까지 가자다 보니 이론학습시간까지는 괜찮지만 예제나 연습문제를 푸는 시간이 촉박했던 것 같다. 학생들의 발표주제는 보통 연습문제와 많이 연결이 된 만큼, 심도있는 발표를 위하여 함께 이론을 적용해보는 연습문제풀이시간을 조금 더 늘린다면 수업의 질이 향상될 것 같다.

또한 수업과정에서 개인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에 대한 모든 재무제표 분석을 해 오는 과제가 있었는데 이부분이 재미있으면서도 취업 준비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런 면에서 취업과 관련한 기업분석 발표시간이 더 많아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VIII. '재무제표분석'을 수강하려는 학우들에게

재무제표분석은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지금은 학생이지만 몇 년만 지나면 사회인이 될 학우들에게 '재무제표분석'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취업준비를 위해 자신에게 맞는 기업을 알아볼 때에도 재무제표분석은 필수적이다. 입사 희망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을 파악하면서 입사 후 자신의 미래모습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제표분석'은 수강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너지가 생긴다. 학생 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수의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재무제표분석'을 수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적극 추천한다.



## 장려상

### 사회복지사의 업무 프로포절

오선빈 / 사회복지학과

이원식 교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평소에 좋아했었다. 또한 3,4학년 여름방학 중 필수로 한 번 기관에서 실습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 전에 사회복지사 업무 중 하나인 프로포절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을 경험하여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듣게 되었다.”



## 사회복지사의 업무 프로포절

오선빈 / 사회복지학과

### 1. 강의 소개 및 수업내용의 유익성

프로그램개발과 평가라는 강의는 1)지역사회 주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조사해보고, 주민들의 문제해결과 역량 강화를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직접 체계적으로 기획해보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과 프로그램을 실행한 이후에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강의입니다. 사회복지학과 개설강의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과목은 아니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한 번 짚은 접해보게 되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대한 업무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에 실습 전 수강하면 매우 유익합니다.

### 2. 효과적인 수업방식

금강대의 가장 큰 특징인 소수정예의 강의를 가장 잘 어울리는 강의입니다. 수업은 교제, PPT, 다양한 수업자료 등을 이용해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다양한 수업자료에는 대체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된 사업 신청서, 보고서가 수업자료로 많이 이용됩니다. 다양한 분야와 종류의 사업 신청서, 보고서를 살펴 보면서 같이 수업을 듣는 학우들과 토론하는 활동이 진행됩니다. 물론 개념과 이론이 배제된 강의는 아닙니다.

1)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김예랑 지음, 창지사 출판]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학습한 뒤 그것을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평가할 때 적용해보는 형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용되고 쓰이는 신청서와 보고서 평가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수업의 가장 큰 메리트이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한학기의 수업 동안 작고 큰 규모로 대략 4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그에 관한 피드백을 서로 주며 보완해보는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 3.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이 수업의 질,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일은 단순히 혼자서 작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관심 있는 분야, 해당 분야의 사회적 이슈를 조사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활동, 사업 신청서를 보고 그 신청서를 평가하고 선정해보는 일 등을 할 때 교수와 학생들 간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호작용 되는 토론수업이 이루어집니다.

프로그램을 개발 할 때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고정화 된 프로그램을 뛰어 넘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모아지면서 독창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단순 프로그램의 개발을 넘어서 그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클라이언트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등 폭 넓은 생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서와 보고서를 보면서 각 기관별 다양성, 특이성, 독창성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구체화, 신청서 작성법 외에도 때로는 그 기관을 대신 변호하여 어떤 기관이 선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아야 하는 지 등을 교수님께 설명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의 동료사회복지사가 되어 상호작용하고 교수님은 슈퍼바이저가 되어 슈퍼비전을 주는 형식으로 강의 3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 4. 자신의 수업참여 노력(수업 준비 및 시험 준비 등)

매주 프로그램을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한 두 개씩은 만들어보는 과제가 있었고 관심 있는 분야, 사회 이슈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과제는 총 4~5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그 외에도 종종 프로그램이 떠오를 때 마다 공책이나, 수첩에 적는 식으로 대략 한 학기 동안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회 이슈를 자주 검색하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최근 이슈와 관심 영역은 무엇이며 최근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트렌드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색하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사회복지 기관에서 대체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 이외에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생각해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도 말했듯이 많은 정보가 필요했고 그것을 프로그램 속에 잘 녹아지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느낌 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는 있었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구체화 시키고 그 프로그램에 맞는 전문적인 견해를 찾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워낙 관심 있는 분야와 사회이슈가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문인의 견해, 논문자료를 통한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갖고 있는 최소한의 정보와 자료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개발한 모든 프로그램을 구체화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에 남습니다.

## 5. 수업 중 보강이 필요한 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능력은 많이 향상되었지만 직접 실행하고 평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실행하고 평가하는 법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그 전에 같이 듣는 학우들과 하나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직접 실행해보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좀 더 풍부한 경험이 될 것 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식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그것을 피드백 받는 체계가 좀 더 구체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보아서 하계 사회복지현장실습 때 아이디어 면에서는 월등했지만 신청서를 작성하는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사업 계획서에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그 프로그램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 6. 예비 수강생들을 위한 조언

하계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무조건 듣고 실습에 참여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을 평소에 개발해 본 적도 기획해본 적도 없다면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실습 현장에 나갔을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식조차 본 적이 없던 친구는 처음부터 막막해 하는 모습을 보았고 현장실습과제 중 가장 어려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장실습 3주의 기간 동안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실행하고 평가하는 부분은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교육 중의 하나입니다.

## 7. 첨부자료(1)

다른 화가들 중도 일국자녀가 서른 한국어때문에 집의 한 입까지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 8. 첨부자료(2)

목 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프로그램명	활 동 (수월방법)
1.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는 신탄진고등학교, 대청중학교, 대청중학교 관련 학생 30명 관계 형성을 위한 팀빌딩 활동 2회 실시	신탄진고등학교, 대청중학교 학생 30명 관계 형성을 위한 팀빌딩 활동 2회 실시	신탄진고등학교, 대청중학교 학생 친밀감 향상	신탄진고등학교, 대청중학교 학생 친밀감 향상	관계맺기 (팀빌딩)	- 아이스브레이킹 활동 진행 - 그라운드룰 등 활동 진행
2. 올바른 자원봉사 가치관 형성	30명 중 고등학생에 대한 자원봉사이해교육 1회 실시	올바른 자원봉사 가치관 형성	올바른 자원봉사 가치관 형성	자원봉사 개념이해	- 피실리테이션 활동을 통한 자원봉사 개념의 이해
3. 디자인씽킹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의 문제점을 학생 스스로 파악,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을 통한 학교 애정도 형성	"학교를 디자인하다, 디자인 씽킹" 프로그램 1회 실시 - 공감하기 - 문제정의하기 - 아이디어도출 - 프로토타입 - 테스트, 생각공유	중·고등학생 학교 관심·애정도 향상	중·고등학생 학교 관심·애정도 향상	디자인씽킹 개념이해	- 전문강사를 연계하여 강의형태로 진행
				공감하기 문제정의하기	- "학교의 문제점"에 관한 관찰, 인터뷰, 감정이입 등을 통해 자료수집 - 자료수집을 통해 얻은 정보로 문제 정의
				아이디어도출	-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등을 통하여 길보다 정답으로 최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
				프로토타입	- 재료를 이용하여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이고 시각적으로 표현 (스토킴보드, 전구, 모형 등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제작)
				테스트 생각공유	- 의견을 받고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의 실현 여부를 검증 - 각 조에서 상정한 아이디어, 프로토타입을 공유
4.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	- 학교에 의제 제출 1회 실시 - 신탄진고등학교, 대청중학교 정문에서 캠페인 활동 1회 실시	학교에 의제서를 제출하고 홍보하는 의견 표출 활동을 통한 자신감 향상	학교에 의제서를 제출하고 홍보하는 의견 표출 활동을 통한 자신감 향상	의견 표출 자원봉사	- 학교에 의제서 제출 - 프로그램 종료 후 신탄진고등학교, 대청중학교 정문에서 캠페인 활동을 실시

[사회복지 현장실습에서 작성했던 프로포절 작성 일부]

사업명: 학교를 디자인하다 "디자인 씽킹"

## 장려상

### 민주주의의 정책학

임진아 / 행정학과

주경일 교수 '정책학원론'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책에 대해 알고 결제하거나 지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 민주주의의 정책학

임진아 / 행정학과

### I. 들어가며

현대국가의 정책은 대내적, 대외적 정책을 막론하고 하나하나의 영향력이 막중하고 동시에 인간생활의 모든 부문에 침투하고 있을 정도로 확대되고 다양화되었다. 이에 발맞춰 정책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의 의사와 반대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정부가 만드는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동의하고 따르기보다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더 나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견제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책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다. 본 에세이는 ‘정책학원론’의 소개, ‘정책학원론’의 수업방식, 이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우들에게, 마무리하며 순으로 진행한다.

### II. ‘정책학원론’의 소개

정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할 기본방침이다.” 정책의 구성요소 중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가장 핵심적 요소이며 이들과 정책 대상 집단을 합하여 정책의 3대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와 정책수단, 정부기관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의 구성은 정책학의 성격, 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 정책과정의 비공식적 참여자,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분석 등의 큰 틀을 갖추고 있다.

본 수업은 행정학과 2학년 전공수업이지만 정책학의 심도 있는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아닌 정책학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앞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는 과정이다. 따라서 기초지식 없는 학우들도 정책학을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다. 전체적인 교육과정으로 보면, 1학기 교과목의 '정책학원론'은 2학기 교과목 '정책분석평가론'과 이어진다.

필자가 이 수업을 통해 배운 것은 정책학만이 아니다. 1학년 때 들었던 행정학 전공 수업인 '행정학개론'에서 처음 접했던 용어인 엘리트론, 다원주의론 등 행정학과 수업에서 중요한 이론들의 등장배경, 이론의 장단점, 이론을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다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만족모형과 합리모형, 이슈 네트워크 등 행정학도(行政學徒)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 개념들의 정의, 특징, 사회에 적용되는 양태, 그로 인한 장단점을 정리할 수 있다.

### Ⅲ. '정책학원론'의 수업 방식

전체적인 수업 방식은 다음과 같다. 교수님께서 칠판에 오늘 학습할 내용을 미리 설명해주셔서 학생들이 전체적인 틀을 잡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다음으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공서적을 공부하면서 재학습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수업이 진행된다.

'정책학원론' 수업을 들으며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교수님께서 매 수업 시작 전 큰 흐름을 놓치지 않게 되뇌어 주신다는 점 이었다. 예를 들어, 특정 사회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정책을 시행하기 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문제 정의/ 분석 → 목표설정 → 대안 탐색 및 개발 → 대안의 결과 예측 → 대안 간 비교, 평가 → 최적 대안 선택”

위의 과정 중 “대안 탐색 및 개발”을 학습하면서 과거의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정책레파토리)를 확인하고 새로운 사회문제에 적용 할 수 있는 이론과 모형을

학습하고 있는 시기였다. “대안 탐색 및 개발” 안에 많은 이론과 모형들을 배우고 있었으므로 전체적인 흐름을 잊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다음 수업 시작 전에 전체적인 틀을 다시 설명해주시고 지금 이 단계 속에 있는 이론과 모형들을 배우고 있다고 상기시켜 주셨을 때, 놓치고 있던 거시적인 흐름을 다시 잡을 수 있었다. 이처럼 미시적인 내용에 빠져 큰 흐름을 놓칠 수 있지만 매 수업마다 거시적인 틀 또한 놓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전공 서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담당 교수님께서 혼자서 책을 낭독하시는 것이 아닌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낭독을 권유한다. 그때 학생 스스로가 참여함으로써 교수님과의 소통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

#### Ⅳ. ‘정책학원론’을 듣고자 하는 학우들에게

필자가 본 수업에 참여했던 태도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예습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이다. 교수님께서 예습을 권유하며 다음 시간 수업 범위를 미리 공지해주신다. 그 부분을 미리 읽어 가면 세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내가 미리 공부했던 내용을 수업을 통해 복습하면서 수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둘째, 예습을 하지 않았을 때 책에서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 헤맬 수 있지만, 예습을 했을 때 교수님께서 책 어느 부분을 넘기고 다음 부분을 하셨는지 알 수 있고 수업을 따라가기 용이하다. 셋째, 교수님께서 수업 도중 중간 중간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책을 미리 읽어가는 등 예습을 했을 경우, 교수님과 상호작용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필자의 수업 참여 노력은 다음과 같다. 예습을 하다가 혹은 수업 도중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었을 때 쉬는 시간마다 교수님께 가서 해결하고자 했다. 교수님께서 쉬는 시간마다 교수실에 계신다. 질문하고자 하는 학우들은 참고하면 좋겠다.

그리고 미시적인 내용이 집중하느라 거시적인 내용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항상 큰 흐름을 파악하며 그 속에 이 내용이 있음을 염려해두는 것이 좋다.

본 수업의 평가 중 30%는 조별과제로 이루어진다. 기말고사 전전주에 모든 발표를 마치고 조별과제 팀을 개개인이 제비뽑기로 선정하기 때문에 공평하다. 필자가 본 수업을 들었을 때의 발표 주제는 아직 정책입안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회문제를 직접 “문제 정의/ 분석 → 목표설정 → 대안 탐색 및 개발 → 대안의 결과 예측 → 대안 간 비교, 평가 → 최적 대안 선택” 이 6가지 단계에 걸쳐 정책 의제로 형성되는 과정을 제작해보는 것이었다. 조별과제는 본 수업이 처음이라서 걱정이 많이 됐지만 선배님들을 따라 함께 준비해보니 얻는 것도 많았다.

## V. 마무리하며

정책학의 궁극적 연구목적은 인간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여 인간존엄성을 보다 충분히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민주주의의 정책학’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책학은 인간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인간존엄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학문이다. 본 학문은 고시 선택과목에도 있을 만큼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공직자에게도 필요로 하는 지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작성한 에세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정책학원론” 수업에 관심을 갖고 필자가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 갔듯이 금강대학교 학우들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가작

###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교양수업에 관하여

박준영 / 국제통상통역학과

정해정 교수 '현대 중국의 이해' / 2학기 과목

“본 강의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만을 나열하는 수업이 아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교수님이 학생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논제에 대하여 제시를 함으로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해서 선정하게 되었음.”



##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교양수업에 관하여

박준영 / 국제통상통역학과

### I. 들어가며.

학생들에게 있어 최고의 강의란, 강의 시간을 통하여 이론적 배경을 습득하고, 이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강의라고 할 것이다. 이론적 배경을 습득한다 함은 강의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실, 역사, 이론 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말할 것이며, 실무적 활용이라 함은 습득한 지식을 자신의 생활 속에 확장하여, 이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최고의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무를 적절히 연관 지어 효과적으로 전달하여야 할 것이며, 학생은 그에 반응하여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창의적인 수업은 교수가 창의적인 교수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수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등학교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대학 강의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학교가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모토로 내걸고 있는 만큼 최고의 강의는 창의적인 강의여야 할 것이다.

본 에세이에서는 이번학기 필자가 가장 유익한 강의라고 생각하는 정해정 교수님의 현대 중국의 이해(교양) 수업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II. 강의 소개

현대 중국의 이해는 세계에서 미국과 더불어 G2국가로 성장하게 된 중국의 그 성장

배경을 이해하고, 그러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 그리고 그 구조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중국 성장과정에서 본받아야 할 점과, 반면교사 하여야 할 점을 습득하는 수업이다.

현대 중국이라는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화인민 공화국의 수립, 더 나아가 중국의 사상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중화사상, 유교적 가치관 등이 확립된 춘추 전국시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강의 명이 현대 중국의 이해기는 하나, 현대 중국의 성장과정과 성과를 강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중국이라는 국가의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성장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본 강의에서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만을 나열하는 수업이 아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교수님이 학생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제시를 함으로써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수업이다. 본 강의는 주입식 교육법에 따라 공부했던 고등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듣게 되는 교양 강의로인 만큼 창의적인 수업이 어떤 것이며,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하고 싶은 신입생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

### III. 강의 분석

#### 1. 의의

대전 대학교의 노길광 교수는 본인의 저서에서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한 요소로서, 좋은 교수, 철저한 강의 준비, 효과적인 교수법, 효과적인 화법, 전달매체, 신체언어, 실무활용을 들고 있다.<sup>2)</sup> 이러한 핵심원칙을 중심으로 본 강의가 어떠한 점에서 유익한 강의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 2. 좋은 교수

좋은 교수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이론적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더

2) 노길광, 남승규(2004), 강의스킬 핵심원칙, 학지사

나아가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교수라고 할 것이다. 즉, 좋은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이론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수업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며, 지나치게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둔 실무적인 수업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본 강의는 수업의 전반부에 그날의 학습목표를 먼저 제시하고, 중국의 역사적인 배경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그 배경에 대한 교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서, 2주차 강의의 경우 강의 초반에 서구적 가치관과 동양(중국)적 가치관의 개념을 정립하고, 더 나아가 두 가치관중 어떠한 것이 더 보편적인 가치관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해볼 것임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서구적 가치관(개인주의)과 동양적 가치관(공동체주의)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교수와 학생간의 의견을 나누게 된다.

이를 이론과 실무의 연관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가치관의 개념(이론적 지식)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나아가 이를 근대적 관점에서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것이다.

### 3. 철저한 강의 준비

대학 강의는 한 학기 동안에 완료하여야 하는 강의 계획이 존재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 계획의 내용에 따라 강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강의의 진행을 위해서는 매 강의마다 교수는 철저히 준비하여 강의를 계획에 따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 강의는 매시간 강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수님의 철저한 강의 준비가 눈에 띈다. 또한 매 강의마다 수업 내용에 대한 막힘이 없고 물 흐르듯 진행된다는 점에서 교수님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지 예상 되는 점이다.

### 4. 교수법

교수법 즉, 강의법을 크게 나누자면 교수의 강의를 중심으로 하는 연설식 강의법,

그리고 학생들 간의 의견 제시를 중심으로 하는 토론형 강의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강의법은 어떠한 강의법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연설식 강의법의 경우 강의를 계획에 따라 진행할 수 있고,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론적 지식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 이라 할 것이고, 반대로 토론식 강의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의식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연설식 강의법의 경우 주입식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토론식 강의의 경우에는 강의를 계획에 따라 진행하기 어렵고, 이론적 지식에 대한 전달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강의 방법이라 한다면, 두 가지 강의법의 장단점을 적절히 보완한 강의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중국의 이해 강의의 경우 전반부는 이론적 배경을 충분히 전달하게 되고, 후반 부에는 교수님 본인의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물음으로서 토론식 강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강의 중간 중간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음으로서 충분한 이론지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5. 화법

좋은 강의는 강의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하지만, 교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강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 교수의 지식만큼 방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강의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강의에 몰입,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 중국의 이해 수업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역사적 지식 전달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역사는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세계사가 선택과목이며, 세계사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중국의 역사에 대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지식은, 일반적으로 기사에서 접하거나 상식수준으로 알고 있는 사실에 불과하다. 때문에 중국에 대한 역사는 일부 관심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다소 생소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강의에서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강의 내용을 최대한 전문적인 용어를 배제하고 학생들의 언어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각 역사적 사실을 한국의 역사적 사실 또는 사회현상과 연관 지음으로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력한다.

## 6. 전달매체

강의에서의 전달매체라고 한다면, 교재 또는 PPT가 될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두 가지 매체 중 PPT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판서 또는 교재 중심의 강의는 강의의 몰입도를 해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판서 또는 교재 중심의 강의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 강의의 PPT에서 제시되는 사진 등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강의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 7. 신체언어

강의중 학생들의 몰입과 집중을 위해서는 교수의 신체언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교탁에만 서서 교재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는 교수보다,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여러 제스처를 취하며, 강의를 하는 교수의 수입이 더 지루하지 않다는 사실은 자명할 것이다. 본 강의에서 교수님은 PPT를 켜놓고 마치 연기자가 연극을 하는 것과 같이, 수많은 제스처를 취하고, 톤의 변화도 매우 다양하다. 이 때문에 다른 수업에 비해서 본 수업에서는 흥미로운 요소를 많이 찾을 수 있고, 보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 8. 실무활용

본 에세이의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이 실무활용이란,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졸업 후 직장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강의에서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자신의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강의에서 배운 비판적 사고능력을 통해 다른 지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 또한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본 강의를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수업 내용(중국의 역사적 지식)을 암기하거나, 이해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강의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할 것이다.

#### IV.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

본 강의에서 교수님은 학생들과 쉬는 시간 및 강의 외 시간에 소통함으로써 학생들의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 학생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넘어서서 학생이 군대를 다녀왔는지와 같은 배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학생들의 배경을 아는 것은 학생들의 지식수준에 따라 그에 맞는 강의 수준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학생들의 배경을 알고 있게 되면, 그에 맞는 학생 눈높이 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본 강의는 6주차부터 논문 발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 자신들의 의견을 보다 충분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V. 필자의 참여 방법 및 조인

강의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도 강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강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본 강의는 강의 계획에 따라 오차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주차의 강의 주제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만 인지하고 가더라도 훨씬 효과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다음주 강의가 문화 대혁명이라면, 문화대혁명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를 하게 되면, 강의시간에는 문화대혁명의 역사적 배경 뿐 만 아니라, 그에 대한 평가, 다른 의견 등 추가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6주차부터 논문 발표가 진행되는 만큼, 전주에 LMS상에 게시되는 논문을 미리 읽고 그 논문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을 미리 생각해 가는 것도 좋다.

## Ⅶ. 강의 중 아쉬웠던 점

본 강의를 학이사습지 에세이의 주제로 선택한 배경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이라는 점이 가장 클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강의에서 수업의 전반부에 그 주의 강의 목표를 설명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사고를 이미 인식하고 강의를 듣게 된다는 점에서 다소 좋지 않은 방법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강의 전반부에서는 교수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이번 강의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배울 것이며, 그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의견과 그 반대되는 의견이 있는지 설명하고, 어떠한 입장이 더 옳은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참고문헌

노길광 남승규(2004), 강의스킬 핵심원칙, 학지사  
EBS제작팀, EBS다큐멘터리 최고의 교수, 예담출판사



## 참가작

**이제 나는 진짜 행정학과 학생이 되었다.**

최주영 / 행정학과

주경일 교수 '정책분석, 평가론' / 2학기 과목

“정책 분석, 평가론을 통해 내 스스로 많이 바뀌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 이제 나는 진짜 행정학과 학생이 되었다.

최주영 / 행정학과

나는 행정학과 학생이다. 행정학은 행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쉽게 말해 국가의 살림살이를 연구하는 학문이 곧 행정학인 것이다.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학문이기에 보통의 행정학과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사회문제, 정책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꽤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나는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들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나 하나, 내 주변의 몇몇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기쁨을 느끼며 살았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도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들과 그로 인한 정책들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준 배움의 기회가 있었다. 바로 정책 분석, 평가론이라는 수업이다.

### 1. 강의 소개와 수업 내용의 유익성

주경일 교수님의 정책 분석, 평가론 수업은 교수님의 정책학원론 수업에 이어지는 강의입니다. 정부의 정책 활동에서 핵심적 과정의 하나인 정책결정과 분석, 그리고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을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정책학의 주요 학문적 논점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풀기 어려운 다양한 정책 갈등 사례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키우고, 이를 통해 그 동안 학습한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해 봄으로써 정책분석 및 평가활동에 대한 실천적 함의까지 연마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입니다.

작게는 정책의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정책의 종류와 유형, 정책과정의 참여자들, 정책의 합리적 분석과정들을 배우고 발표시간을 가져 이를 학생들이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이 유익한 이유가 바로 이 조별발표 덕분입니다. 사실 어떤 대학생에게 물어봐도 조별발표가 좋다는 대답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조별발표가 썩 즐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 피할 수 없어 즐겼던 조별발표가 나를 진짜 행정학과 학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교수님이 내주시는 발표과제는 정책문제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목표를 설정, 정책대안을 탐색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까지 모두 학생들이 직접 생각하고 찾아냅니다. 발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없었다면 교수님의 강의를 그저 듣는 것에 그쳤겠지만 발표과제를 수행해야하기에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사회의 여러 문제들과 정책들에 스스로 관심을 안 가질 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수업이 유익하다는데 반대할 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 2. 효과적인 수업방식

교수님께서서는 배울 내용을 먼저 칠판에 판서로 설명을 해주시고, 책으로 한 번 그 부분을 정리해주시기에 더 기억에 잘 납니다. 그 다음 수업부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에 대해 상기시키시면서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복습을 하게 됩니다. 이 수업에는 큰 강의준비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때 그때의 수업을 열심히 듣고 이해하고 수업가기 전 한 번 훑어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 3.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

위에서도 말했지만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여 저희의 생각은 어떤지를 물어보십니다. 전공수업이라는 것이 자칫 세 시간동안 교수님의 말씀으로만 이어지기 쉽지만 이 수업은 저희에게 질문하여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혹시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도 기다려주시고 대답을 들어주십니다. 또한 발표과제를 수행 할 때도 우리가 선정한 주제와 그 내용에 대한 합리적 과정에 있어 올바른게 나아가고 있는지 찾아가 질문하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주시며, 혹은 더욱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도 합니다.

#### 4. 자신의 수업참여 노력

처음에는 교수님이 수업 중간에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 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번 수업에 들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학생들은 어찌나 대답을 잘 하던지, 그때부터 저도 대답을 하기 위해 수업 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훑어보고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다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괜히 대답하려 하면 아닌가 싶고 내가 대답해도 될까 싶어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자신감이 꽤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대답 한 번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대답을 한 두 번씩 하게 되고 남들은 모르겠지만 혼자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 수업은 조별발표가 평가 부분의 30%를 차지해 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별발표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찾아 정리하고 발표하는 발표과제가 아닌 저희들의 생각과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한 과제였기에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5. 수업 중 보강이 필요한 부분

수업 자체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 6. 예비 수강생들을 위한 조언

우선 정책 분석, 평가론은 정책학원론에 이어지는 수업이기에 정책학원론을 먼저 듣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책 분석, 평가론에서도 정책학원론의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주시기는 하지만 이미 한 번 듣고 온다면 안 듣고 온 학생들에 비해서 이해하기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업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당연히 모든 수업이 수업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특히 이 수업만큼은 학생들이 교수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쉬운 강의는 아닙니다. 전공 수업이니만큼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또 그게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발표과제도 단지 인터넷의 자료를 찾아 정리해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기에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더 많이 소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강의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행정학과 학생이지만 저처럼 사회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에게 이 강의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 사회문제들을 찾아보면서 그에 대한 정책목표들을 설정하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까지 직접해보며 몰랐던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행정학과 학생에게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금강대 학우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가작

### 어서와, 이런 불교 수업은 처음이지?

이정렬 / 불교학과

정상교 교수 '불교철학과 대중문화' / 2학기 과목

“지금까지 없었던 불교와 영화가 만난 수업으로, 이색적이고도 참신한 수업이며, 과를 막론하고 다방면의 유익한 내용을 얻을 수 있는 수업이기에 다음과 같은 강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어서와, 이런 불교 수업은 처음이지?

이정렬 / 불교학과

어느 덧 그간의 여름방학이 다 지나갈 무렵 수강신청 기간이 다가온 때였다. 새 학기를 맞이한다는 설레는 기분과 함께 아직 채우지 못한 전공 영역을 들어야한다는 의무감으로 홈페이지를 접속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지 망설임이 앞선 채 클릭을 하던 중 한눈에 들어오던 과목이 있었다. 바로 '불교철학과 대중문화'라는 과목이었다. 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니 영화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불교사상을 음미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수업인 것 같았다.

보통 불교학과의 수업은 경전 혹은 논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이번 수업은 친근한 대중매체에서 불교를 찾는 것이었다. 불교학과 학우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학생들까지도 보다 친숙한 콘텐츠를 토대로 마음 편히 들을 수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수강인원은 과를 막론하고 최다인원을 기록하게 되었다.

담당 교수님은 같은 금강대학교를 졸업하신 선배님이시자 불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관불교를 전공하신 정상교 교수님이다. 처음 뵈기에는 시끄러운 분위기의 교수님일 것 같았지만 처음 OT시간부터 학생들은 다들 교수님의 유머에 빠져 들게 되었다. 그렇게 첫 시간부터 교수님의 수업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수강인원의 급증으로 분반이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교수님 소개에서 부터 강의가 끝날 무렵까지 장난과 농담으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적어도 OT만으로 따진다 해도 지금까지 최고의 OT 시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이다. 보통 '교수님'하면 어렵게만 생각되던 분위기와는 달리 정상교 교수님께서서는 딱딱한 수업이 아닌 토크쇼 프로그램 진행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머러스하게 수업을 이끌어 가시곤 하신다. 학생들에게 지난 주 동안의 안부를 물으실 때에도, 영화를 보여주시며 하나 씩 설명해주시길 때에도 어디에나 교수님의 유머가 들어있어 매번 수업은 지속적으로 웃음이 끊이지 않고 흘러가기 마련이다.

어떻게 보면 같은 학교 선후배의 만남의 장이기도하기에 교수님에서는 가끔 선배의 입장으로 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조언도 아끼지 않으신다. 뿐만 아니라, 불교를 고리타분한 교리적 얘기가 아닌, 때로는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현실적으로 공감되는 이야기를 풀어주시곤 하는 점이 오늘날 불교를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귀감이 되기도 한다.

수업은 대중문화의 주를 이루는 영화를 보고 그 속에 녹아있는 불교적 개념과 사상을 되짚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교와 영화는 얼핏 보면 동떨어져 있어 보이지만 수업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묶였기에 이색적이고도 참신한 느낌이 들곤 한다. 수업에서는 대체로 ‘매트릭스’, ‘너의 이름은’ 등등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은 명작들이 강의의 주된 소재가 되기에 학생들에게 보다 흥미로운 수업이지 않을까 싶다.

불교와 영화가 만나 불교학과 학생들에게는 경전 밖의 세상에서 불교를 찾는 작업을 맛볼 수 있으며, 타과학생들에게는 친숙한 영화를 통해 불교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등 어떤 학생이 듣더라도 무언가를 새롭게 배워갈 수 있는 수업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 불교적 지식이 없더라도 교수님의 쉬운 설명이 이뤄지기에 누구나 부담 없이 와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이기도 하다.

수업 자체에서는 반드시 별다른 예습을 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수업을 듣기 전에 개개인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에서 영화의 스토리를 설명해주시고 주요 부분을 보여주시지만, 대체로 영화가 길고 수업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의의 주된 목적은 대중적인 영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여 불교 사상을 되짚어 보는 데 있다. 비불교적인 미디어를 방편삼아 거기에서 불교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코드를 읽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영화의 일반적인 스토리와 주된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1차적인 것의 기본 맥락을 알아야 그 후에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수업 전에 미리 영화 전체의 맥락을 숙지하고 오는 것이 어느 정도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필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교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보니 영화의 내용을 먼저 파악한 뒤, 한발 떨어져서 불교적 관점으로 다시금 생각해보는 과정을 거치곤 한다.

단지 불교를 배우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무엇을 말한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는 어떻게 불교식으로 말하고 있구나', '불교 밖의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것과 상응하는구나'라는 식으로 스스로 불교적 안목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교학의 발전은 깊이 있는 불교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에서 시작되며, 그것은 자기 스스로 이런저런 질문을 만들며 사고를 연마해가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이 반드시 필수인 것은 아니다. 수업시간 때의 교수님의 상세한 설명으로도 충분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먼저 파악해보고 강의 교안을 참고로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는 것이 생각의 틀을 깊게 하고 교정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수업을 통해 자신이 생각 했던 것과 비교해봄으로써 집중도를 높일 수 있으며, 불교적 사고를 정리하고 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타과 학생의 경우에는 수업자체로도 기본적인 이해를 쌓을 수 있겠지만, 불교에 뜻이 있어 응용하고자 하는 불교학과 학우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주도적인 학습은 스스로의 사고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 항상 그렇듯, 수업도 수업이지만 자기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듯이 말이다.

불교를 응용하는 것이란 불교의 가르침을 삶 속에 구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불교 사상이 은연중에 깃든 어떠한 문화 혹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불교는 과감히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

불교를 하는 이에게 있어서 물론 불교사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이지만, 그것을 대중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도 고민 해봐야하는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 역시 예전 시대의 불교가 아닌 현실에 맞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이러한 수업은 가히 기존의 불교학과 수업의 흐름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으며 불교의 현대화 작업을 위한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불교를 잘 모르는 타과학생들에게는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불교를 전하는 것과 같으며, 불교를 응용하는 데에 관심 있는 학우들에게 있어서도 참신하면서도 새로운 경험의 기회라 할 수 있다. 응용불교에 힘쓰고자 하는 불교학과 학생이라면 불교라는 틀에서 벗어나 불교가 아닌 다른 콘텐츠와의 연결점을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하며, 이 수업은 그에 걸 맞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 개인의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수업이지만, 현재 수업에 있어서 수강인원이 너무 많이 집중되기에 학생들 개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소통을 나누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인다.

불교라는 학문 특성상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깊이 있게 파고들며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고 다시 다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수강신청기간에 신청인원을 고려하여 분반이 이루어져야 보다 학생들도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수업 분위기를 관리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원활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다.

과제나 시험에 관해서 교수님에서는 전혀 새로운 내용을 창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과목의 목적에 걸맞게 어떤 영화를 보고 불교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 주제가 된다. 영화 내에서 어떠한 불교적 사상이 주요로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수업내용을 따라가며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에 맞게 생각해 보는 데에서 저절로 시험 대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강의를 듣게 될 학우 분들께서 준비할 것은 거창한 선행학습이 아닌 성실한 수업참여가 중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수업 내에서 교수님께서 전달 해주시는 도움 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한 가지 권유사항이 있다면 앞으로도 불교에 뜻을 둔 불교학과 학우라면 주도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자 하는 열의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업이라고 추천할 수 있다.

수업에서는 불교의 어렵고 난해한 내용이 아닌, 기본교리가 주를 이루기에 불교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도 보다 쉬운 이해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불교가 어렵게만 느껴졌던 학생들 그리고 채워야 할 학점이 모자라 고민하던 학생들에게 이 수업은 마치 학기 중에 부담 없이 쉬어갈 수 있는 단비 같은 수업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매번 수업이 지루하지 않게 노력해주시는 교수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에세이를 마치고자 한다.



## 참가작

### 영어를 배우다.

강은주 / 회계학과

하응천 교수 '영어에세이 읽기' / 2학기 과목

“배울 점이 많은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 영어를 배우다.

강은주 / 회계학과

### I. 들어가며

영어 실력을 늘리겠다는 막연한 목표를 갖고 수강 신청을 했다. 떨어는 첫 수업을 가니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다. 사실은 내가 영어 실력이 부족한데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는 철회의 길과 수강의 기로에 섰었다. 그래서 교수님께 솔직하게 “제가 영어를 많이 못하는데 여기 사람들과 잘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학생이 잘하는 사람들과 수업하면 그만큼 노력을 더 해야 하니 오히려 실력이 늘 수 있어”라고 답변해주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못한다고 해서 피하려고만 했지 부딪혀서 더 많은 것을 얻어 가고자 생각을 안 했다. 교수님께 큰 깨달음을 얻고 수강의 길을 택했다.

### II. ‘영어 에세이 읽기’ 소개

영자신문 사설 및 기사 읽기를 통하여 여러 이슈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그러면서 현대인에게 필요한 소양을 넓히는 수업이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할 문법들과 어려운 문장구조에 대해 배워 영어 실력을 높일 수 있다. 영어 에세이를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요약하기를 해보며 요약하는 법을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된 글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요구해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를 하게 된다. 요약하는 부분에서 영어로 된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 요약을 시작할 때 유의할 점이나 자신의 언어로 바꾸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따라서 글쓰기 능력도 항상 시킬 수 있다.

### Ⅲ. 체계적인 수업 방식

다음 주에 할 에세이를 교수님께서 LMS에 미리 올려주시고 학생들은 읽고 단락 별로 요약해 해온다. 수업시간에는 정해진 모둠과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나 어려웠던 문법들을 같이 나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알고 상대방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교수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문법이나 표현을 알려주신다.

그렇게 에세이를 완벽하게 이해한 뒤 본격적인 요약하기 과정에 들어간다. 각 문단에 대한 제목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미리 해온 각자 생각을 공유하면서 합쳐서 각 문단의 하나의 제목을 만든다. 그런 다음 각 문단의 제목만을 모아서 모듬끼리 에세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얘기한다. 이때 많은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토론의 장이 열리기도 한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들 수 있어서 생각의 폭을 넓혀준다. 이렇게 해서 각 모듬의 요약문이 하나씩 만들어지면 그날에 LMS에 올린다.

다음 주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께서 모듬들이 저번 주에 올린 요약문을 비교해주시면서 잘한 점, 부족한 점을 알려주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선행 학습을 꼭 해야지만 수업 참여가 가능한 수업 방식을 통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부족한 점을 알려주셔서 실력이 나아지도록 하는 체계적 수업 방식으로 수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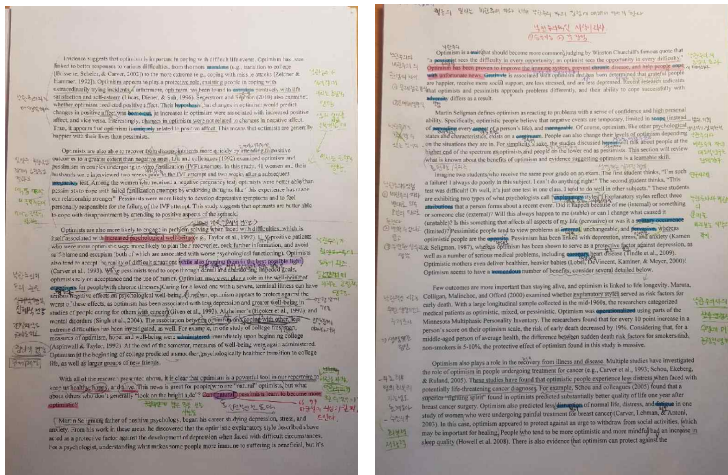
### Ⅳ. 교수님과 상호작용으로 생각의 힘 기르기

언제나 어떤 질문이든 웃으시며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주신다. 그리고 고쳐야 할 점은 누구보다 냉철하게, 칭찬은 누구보다 후하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각 모듬의 요약하기에 대한 각자의 생각의 토론이 열리고 있을 때, 교수님께서도 몰래 듣고 계시다가 주제와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면 바른길로 가게 잡아주신다. 또는 한 쪽 모듬에서 다 같이 이야기 나눠볼 좋은 주제를 말하면, 다 같이 생각을 나눌 수 있게 하던 토론은 멈추게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교수님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 해주면서 생각의 힘을 길러 주신다.

## V. 영어 에세이 수업 참여 노력

영어를 못한다는 생각을 때문에 LMS에 다음 주 자료가 올라오자마자 프린트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해석했다. 단어를 겨우 이해하면 문법이 또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관련 문법도 찾아가면서 문법을 공부했다. 이 수업은 요약하기 수업이기 때문에 이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요약할 해야 했다. 그렇기에 일주일에 다음 주 기사를 예습하는데 5시간을 투자했다. 그 글을 수업 한 뒤에는 내가 몰랐던 부분을 정리하고 교수님이 잘못된 부분을 잡아주신 것들을 반영해서 요약문을 다시 썼다. 그렇게 8주차 반복하니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 더 완벽한 요약하기를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다.



< 예습하고 수업시간에 메모한 것들 >

## VI. 수업의 아쉬운 점

영어 에세이 읽고 요약하기 수업이다 보니 개인들은 거의 문법은 안다고 가정하고 에세이에 나온 중요한 문법만 알려주신다.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수업시간 한 시간 정도는 기초 문법을 잡아주셨으면 요약할 때 수월하지 않았을까 한다.

## VII. 예비 수강생들을 위한 조언

영어에 대해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 수업을 적극 추천해주고 싶다. 또 글 쓰기에 자신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왜냐면 수업을 듣고 나면 자신의 부족한 실력을 알게 되고 더 탄탄한 글을 쓰게 될 테니.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이 수업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 의견의 옳은지 판단을 해주는 사람이 없기에 자신의 의견이 무엇이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가작

### 글쓰기의 즐거움

김진희 / 중국어통번역학과

유용태 교수 '글쓰기와 토론' / 2학기 과목

“강의 내용이 유익 할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강의 진행방식 또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다. 평소 글쓰기에 관심이 없었지만 교수님의 글쓰기와 토론 강의를 듣고 글쓰기 책을 찾아 읽을 정도로 글쓰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글쓰기의 즐거움

김진희 / 중국어통번역학과

글쓰기와 토론 수업은 우리 학교 필수 교양과목입니다. 학문탐구능력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 직업인의 기본 소양에 해당하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능력과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교양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바른 어휘와 문장, 글쓰기 절차와 방법, 글쓰기 실제로 이어지는 강의와 듣기와 말하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로부터 발표 및 토론을 실제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매 강의 전에 교수님이 LMS에 파워포인트 자료를 올려주시면 학생들은 프린트를 해갑니다. 매일 과제가 있지는 않고 중간고사 전에 수업시간에 글쓰기 시간이 2번 주어집니다. 이론적으로 배웠던 글쓰기 기술을 실제적으로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팀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토론 발표를 1번 해야 합니다.

평가방법은 출석 20점 만점으로 지각 1점, 결석 2점을 감점합니다. 지각 2번은 1번의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총수업의 1/3 이상을 결석할 경우, 학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소는 20점 만점으로 출석 후 교실 이탈은 결석 3번으로 처리되고, 공지된 수업 중 금지 사항을 행할 경우, 1번의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글쓰기이며 불참시 점수를 받을 수 없고, 토론 발표 또한 불참시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이 수업을 알차게 진행해 주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주시기 때문에 수업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글쓰기에 대한 흥미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팀 구성은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짤 수 있지만 따로 원하는 사람이 없을 시에는 교수님 재량으로 팀을 짜주십니다.

7주차가 되면 글쓰기를 하게 되는데 시간 : 90분, 분량 : 1000자 내외 글쓰기 양식 - 4단으로 구성 - 서론, 본론, 결론의 목적에 충실 글쓰기에 대한 퇴고 - 삭제의 원칙 - 첨가의 원칙 - 재구성의 원칙으로 글을 쓰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글을 써서 제출하면 교수님께서 피드백 해주십니다.

일단 학생이 최소한 수업 전에 수업자료를 프린트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글쓰기를 하기 때문에 학생이 딱히 준비할 필요가 없고 수업시간에 다뤘던 프린트를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점은 시간입니다. 교수님이 준비해 오신 분량이 있는데 2교시로 진행되는 수업 이다보니 수업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만일 내년 2학기에 글쓰기와 토론 수업을 듣게 된다면 유용태 교수님의 글쓰기와 토론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글쓰기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가능해지고, 글쓰기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글을 쓰는데 관심도 두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었지만 이 수업을 듣고 나서 글쓰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려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글을 쓸 때 필요한 공식을 알려주셔서 글을 쓰는데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번학기가 끝나고 나서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글을 써야 할 일이 많을 텐데 그 때마다 교수님의 가르침이 감사하게 생각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

발행일 | 2017년 12월

편집인 | 교수학습지원센터

발행처 | 금강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32906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

전화 041-731-3370, 3371

팩스 041-731-3039

이메일 [ctl@ggu.ac.kr](mailto:ctl@ggu.ac.kr)

---